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 속 : 지리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
성 명 : 정 재 민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지리산에서 함께하는 화엄사 문화 여행
운영목표	화엄사에 있는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해설주제	지리산 화엄사 역사·문화 여행
해설소재	화엄사 일주문~대웅전
운영장소	화엄사
운영시기	상시 운영
모니터링 주기	매월 2회
소요시간	1시간
주요대상	가족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인사말	• 인사말 • 안전사항 안내		일주문	5분
주제별 해설	문화여행	• 화엄사 문화 여행 일주문~대웅전)	사진 자료, 미션 용지	일주문 ~ 대웅전	30분
	놀이	• 화엄사 국보와 보물을 이용한 미션 놀이			20분
마무리	마무리	• 마무리 인사 • 가족별 단체 사진	폴라로이드	대웅전	5분

해설프로그램 진행 시나리오

해설프로그램

지리산에서 함께하는 화엄사 문화 여행

활동장소 화엄사 일원
소요시간 60분
참가대상 가족
참가인원 15명 내외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동기유발	**인사 및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정재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엄사에 한번이라도 와보신 분계실까요? 네,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와보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저와 함께 화엄사 곳곳을 다니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엄사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무슨 산일까요? 네,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 왔으면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지리산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지리산 이름의 뜻은 지혜로울 지, 다를 리(이)로 '지혜가 남다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롭게 바뀌어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주제별 해설	**화엄사 문화여행_일주문** 앞에 보이는 일주문은 화엄사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문은 양 쪽에 있는 기둥을 위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일주라는 뜻은 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찰에 들어갈 때 다른 생각 없이 오직 부처의 마음을 생각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사의 일주문은 다른 사찰의 일주문과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른 점을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일주문은 돌담과 문이 없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화엄사의 일주문을 보면 옆에 돌담도 있고 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돌담도 쌓아놓고 문도 만들어 놓았을까요? 옛날 이 곳은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 많이 있었데요. 그 때 많은 사찰들이 불타서 없어지기도 했는데 화엄사를 중창, 다시 지으셨던 벽암스님께서 왜적의 침입을 막고자 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리산화엄사'라고 적혀있는 현판 왼쪽을 보시면 작은 글씨 보이시죠? 저 작은 글씨는 이 현판을 누가 적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글씨인데요. 이 현판은 선조의 8번째 아들 의창군 광서가 써준 현판입니다. 다들 이 말 아시죠? '나는 떡을 썰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누구죠? 네, 한석봉. 의창군은 한석봉 체의 글씨를 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불교는 어떤 대접을 받은지 다 아시죠? 숭유억불로 불교가 억압받던 시기였는데요. 이렇게 왕자가 적어준 현판을 걸어놓음으로서 지방 관리들의 핍박이나 수탈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화엄사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30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차일혁 총경 공덕비** 앞에 보이는 공덕비는 차일혁 총경 공덕비인데요. 총경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경찰이죠. 왜 화엄사 같은 사찰에 경찰의 공덕비를 세워놓았을까요? 이 차일혁 경무관님은 화엄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찰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 분이 남기신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지리산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빨치산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상부에서 모두 불태워버려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일혁 경무관은 사찰의 가치를 알고 위에 가면 각황전이라고 있는데, 그 각황전의 문짝만 떼어내 불태우고 상부에 "문짝을 태운것도 태운것이니 명령을 이행한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상부에서 봤을 땐 어땠을까요? 명령을 어긴 분이겠죠. 그래서 명령불이행으로 감봉처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리산의 많은 사찰을 지켜준 분으로 이렇게 화엄사에서 공덕비를 세워놓았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실까요? 그 드라마에서 박상원이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차일혁 경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보박물관** 성보박물관은 화엄사에 있는 국보나 보물을 전시해놓은 곳이에요. 한번씩 보고 오시면 됩니다. **구시** 앞에 보이는 긴 나무통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네, 앞에 나무통은 구시라고 하는데요. 밥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옛날에 절에 큰 행사가 있으면 밥을 지어서 보관하는 통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스님들도 승군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 때 많은 스님들이 밥을 먹고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씩 담아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깐 이렇게 큰 통에 밥을 비벼서 빨리 밥을 먹고 전쟁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구시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잖아요? 그 때 염라대왕을 만나는 데 염라대왕이 화엄사에 있는 구시를 보았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거기서 봤다고 하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못 봤다고 하면 조금 안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옵니다. **벽암국일도대선사비** 이 것은 벽암국일도대선사비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화엄사를 다시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네, 벽암스님입니다. 국일도는 '한 나라의 으뜸이 되는 대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암스님은 사찰을 중창하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승군으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축조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어떤 동물처럼 보이시나요? 머리는 용의 형태를 하고 있고 등은 거북이입니다. 용생구자설을 보면 용에게도 9마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아들인 비희입니다. 이 비희는 무거운 비석을 등에 들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을 가더라도 등에 비석을 하고 있는 동물은 비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바로 거북선. 자운스님이라는 분이 이 연의 모습을 보고 거북선을 만들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옵니다. 옆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배롱나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배롱나무라고도 부르고 목백일홍이라고도 부릅니다. 백일홍은 7월~9월 100일 동안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꽃이 백일동안 피어 있는 게 아니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100일 동안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무껍질을 보시면 엄청 매끄럽죠 이 나무껍질의 매끄러움이 양반집에서는 여인의 나신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기시 되는 나무지만 이렇게 사찰에서는 이 나무의 껍질처럼 세속을 버려버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문** 금강문은 사찰 중심영역으로 가는 두 번째 문입니다. 사찰에 따라 인왕문이라도 부르고 두 명의 금강역사 그리고 동자스님들이 있습니다. 먼저 금강역사를 보면 한 명은 주먹을 쥐고 있고 한 명은 손바닥을 펼쳐 막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로 들어오는 잡신과 악귀를 물리쳐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는 역사들인데 금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단하다,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듯이 금강석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동자들을 보면 문수동자, 보현동자가 있습니다. 해태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코끼리를 상징하는 보현동자는 실천을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문을 들어올 때 어떤 동물의 눈을 보고 들어오죠? 들어올 땐 해태의 눈을 보고 나갈 땐 코끼리의 눈을 보고 나가는데요. 들어와서 지혜를 얻고 나가서 실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천왕문** 이 문은 천왕문입니다. 사찰을 보면 금강문만 있거나 천왕문 하나씩 있는게 대부분인데요. 화엄사처럼 금강문, 천왕문 두 개가 다 있다는 건 화엄사의 크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천왕문도 금강문과 마찬가지로 사찰로 들어오는 악귀들을 막아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왕들은 원래 귀신들의 왕이었지만 석가모니에게 귀의해서 동서남북으로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 입구 천왕을 보면 몸이 약간 입구 쪽으로 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어떠한 악한 무리를 들여보내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보제루** 보제루는 '널리 구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의 법회식을 드릴 때 사용하는 강당과 같은 곳인데요. 대웅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웅전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어서 법회를 가졌습니다. 화엄사 보제루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찰의 보제루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보제루 같이 '루'의 형태는 이층이나 삼층으로 되어 있어서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있는 누각진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엄사의 보제루는 밑으로 이동갈 수 있을까요? 화엄사의 보제루는 밑으로 갈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만든 우각진입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각진입의 이유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제루도 보제루지만 이 기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둥은 그랭이기법이라는 옛날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양 옆의 기둥을 보면 매끄럽고 이쁘게 되어있는 반면에 보제루의 기둥은 울퉁불퉁합니다. 이 그랭이기법은 사진을 보면 컴퍼스처럼 생긴 그랭이가 있는데요. 그랭이의 한 부분은 돌에 대고 다른 한쪽은 먹물을 뭍혀서 나무에 대고 한바퀴를 돕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의 높낮이에 따라 나무에 그려지게 되겠죠? 그 그려진 곳을 정과 망치를 가지고 파내고 깎아내서 돌 위에 얹혀 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죠? 그 때 양 옆의 기둥처럼 매끄럽게 만들어진 기둥은 가운데 철심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잘 부서지게 되는데 그랭이기법으로 만들어진 전각들은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고 옆으로 잠시 이동할게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만든 이유를 말씀드릴건데요. 앞에 보면 주불전인 대웅전이 보이고 더 가면 대웅전보다 더 커 보이는 각황전이 보입니다. 이렇게 누하진입으로 갔을 때 주불전보다 더 큰 각황전이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각진입 뿐만 아니라 계단을 보시면 각황전 앞 계단은 3칸, 대웅전 앞 계단은 4칸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볼 때 대웅전이 더 크게 느껴지도록 했고 탑을 보시면 대웅전 앞의 탑에는 무늬가 없어서 단청이 칠해진 대웅전으로 눈이 가게 하고 각황전 앞의 탑은 십이지신, 팔부신상, 사천왕 등 무늬를 조각해서 각황전에 눈이 가다가 저 탑엔 뭐가 조각되어 있지 하고 탑에 눈이 가도록 만들어서 각황전과 대웅전을 동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화엄사 중심영역** 올라오느라 힘드시죠? 보제루에 잠시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 먼저 탑을 보면, 혹시 탑이 몇 층인지 세는 방법을 아는 분 계실까요? 네, 보통 기단부를 제외하고 층수를 세는 방법이 있는데요. 탑 끝을 보면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을 옥개석이라고 하는데, 이 옥개석을 세어 보면 어느 사찰을 가든 “아! 이 탑은 몇 층이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괘불지주** 저 쪽에 3개 기둥 보이시죠? 저 기둥은 괘불지주입니다. 괘불지주는 사진과 같이 야외에 법회를 드릴 때 탱화를 걸어놓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탱화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걸기도 합니다. 혹시 “야단법석 떨지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야외에 단을 펴서 법회를 드린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요. 어떨 때 그런 말을 쓰죠? 네, 엄청 시끄럽고 떠들썩할 때 “야단법석 떨지마”라고들 하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렇게 야외에 단을 펼쳐서 법회를 드릴 때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조선시대 숭유억불 때문인지 소란스럽고 떠들썩 할 때 “야단법석 떨지마”라는 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각황전** 그리고 왼쪽은 각황전이구요. 각황전은 현존하는 목조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각입니다. 원래는 장육전이라는 이름이었고 일장육척, 약5미터가 되는 부처님을 모셨고 각황전 벽면에는 아까 성보박물관에서 보셨을텐데 화엄석판이라고 화엄경이 새겨진 돌판이 벽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불타서 사라지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거기서 남아있던 석경을 지금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황전 앞에 있는 석등을 보면 각황전과 비율이 안 맞게 조금 더 커보이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각황전은 원래 3층이었는데 석경과 마찬가지로 불타고 2층으로 중건이 되었습니다. 3층이었던 각황전에 맞춰서 만들어진 석등이 각황전이 2층이 되면서 비율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통전** 원통전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건강이나 하는 일 모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씩 드리면 좋을거 같아요.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대웅전** 대웅전은 화엄사의 주불전입니다. 대웅전 현판을 보면 아까 일주문의 현판을 적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네, 8번째 왕자인 의창군 광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웅전의 현판도 그 의창군 광서가 적어준 현판입니다. 그리고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이 모셔져 있어요. 주불인 비로자나불의 손 모양을 보시면 부처를 뜻하는 오른손이 중생을 뜻하는 왼손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수인은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와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는 주불전을 대웅전이라고 부르고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전각은 대적광전 또는 비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화엄사는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데? 대웅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대웅전으로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왕자가 내려준 현판인데 “글자가 틀렸으니깐 다시 써주세요”라고 말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부전** 명부전은 원통전과 다르게 죽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곳인데,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거기서 7일에 한번씩 7번 재판이 이루어지고 총 49일이라서 49제라고들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나중에 가서 뵐 수 있으니 한 번씩 가서 보고 오세요. **미션게임** 여기까지 화엄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미션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족 이름을 말하면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미션용지를 받아 가면 됩니다. 미션 용지를 보면 화엄사에 있는 국보, 보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용지에 있는 국보, 보물의 사진을 찍어오면 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가족의 얼굴이 한 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찍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한시간동안 사진을 찍어 오시면 되고 못 찍는 개수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가족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마무리** 네, 이렇게 오늘 화엄사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긴 시간 움직여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 속 : 지리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
성 명 : 양 민 영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사찰 산책하기
운영목표	산책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사찰이야기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느껴보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 마련
해설주제	사찰을 통해 배우는 조상의 지혜와 사찰이 주는 위안
해설소재	사찰을 지키는 문, 구시, 벽암국일도대선사비, 사찰안의 나무, 당간지주, 보제루, 대웅전, 각황전, 동·서오층석탑, 석등, 원통전, 사자탑
운영장소	화엄사
운영시기	연중
모니터링 주기	월 1회
소요시간	60분
주요대상	지리산생태탐방원을 방문한 가족 10명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사찰의 첫느낌	• 인사 및 자기소개 • 주의사항 • 사찰이 주는 기운나누기 • 일주문의 역사적 의미	구급가방	일주문	5
주제별 해설	사찰을 지키는 문 사찰안의 나무	• 금강문, 천왕문의 역할 • 배롱나무, 동백나무가 절에 많은 이유 • 올벚나무, 보리수, 홍매화		각 문화재	10
주제 심화	화엄사의 역사적 의미	• 벽암대사각성비, 구시를 통하여 임진왜란 정유재란때 화엄사의 역할		각 문화재	15
	사찰을 통해 배우는 우리나라 조상의 지혜	• 대웅전을 돋보이게 하기위한 보제루의 건축 배치		각 문화재	15
정리	아름다운 조상의 건축문화	• 각황전, 석등, 사자탑		각 문화재	10
마무리	사찰이 주는 기능	•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찰이 주는 위안에 대한 생각		각 문화재	5

해설프로그램 진행 시나리오

해설프로그램

사찰 산책하기

활동장소 화엄사 일원
소요시간 60분
참가대상 가족
참가인원 10명 내외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동기유발	**인사 및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찰 산책하기를 하게 될 지리산생태탐방원 자연환경해설사 양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엄사에 오셨던분 계신가요? 아.. 오셨던분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산책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5
주제별 해설	화엄사는 멀리 인도에서 온 연기조사가 창건한 지리산의 3대 사찰 중 가장 큰 사찰이며, 국보4개 보물8개가 있는 문화적 가치도 뛰어난 사찰입니다. 이곳은 속세를 떠나 불도에 들어서는 첫 번재 관문인 일주문입니다. 기둥이 한줄로 서있다 하여 일주문이라하고, 사찰에 들어서면 세속을 씻고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라는 일심(一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화엄사 일주문은 보통 사찰과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찾으신 분 있으세요? 네.. 불교문의 특징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문은 있지만 문짝도 없고 담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엄사는 임진왜란때 승군의 주둔지이며, 훈련장이었습니다. 많은 왜군과 싸우다 승군이 전사하였고, 정유재란때 그 보복으로 왜군의 손에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불탄 화엄사를 중창한 벽암스님이 다시는 왜군의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문과 담장에 담은 것이라 합니다. 현판 글씨가 고풍스럽고 멋지죠? 지리산 화엄사.. 선조의 8번재 아들인 의창군의 글씨입니다. 화엄사에는 의창군이 쓴 현판이 두 개있는데 하나는 일주문에 있고 또 하나는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명필이었던 의창군은 “나는 떡을 썰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의 한석봉 글씨체를 좋아해서 이 글씨체도 한석봉 글씨체라고 합니다.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에 왕실의 친필 현판을 걸어두면 지방유지의 행패와 수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친필 현판을 내려 줄 만한 사찰, 그 정도라면 조선시대 화엄사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럼 속세의 세상을 벗어나 불도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어떤가요? 으리으리한 대리석이 화엄사의 세력이 어느 정도 느껴지죠. 아기부처님의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 일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이곳에서 SNS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구요. 벽에 뭐라고 씌여 있나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을 다잡을 때 한번씩 읊어보게 되는 말이죠. 원효대사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화엄사성보박물관입니다. 화엄사의 창건과 역사,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10분후에 이곳에서 모여주세요. 여러분 무엇에 쓰이는 것일가요? 배? 소여물통? 절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밥을 지어 보관하는 통, 천명이 넘는 승려들이 모여 사는 사찰에서는 쌀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회 등 큰 행사 때 밥을 비벼 내놓는데 사용했습니다. 정유재란 때 많은 승병들이 신속하게 밥을 먹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염라대왕이 화엄사의 구시를 보았냐고 묻고 보았다면 극락을 보내주었다는 설화가 나올 정도로 염라대왕이 구시를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30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벽암대선사비를 보면 아래 받침돌의 머리는 용, 몸통은 거북이같죠.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인데 연기조사가 타고 왔다고 전해집니다. 용의 아들이 아홉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아들인 비희라고도 부릅니다. 비희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기를 좋아하여 비석을 얹어주면 기분이 좋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사찰의 비들은 이 비희라는 받침돌위에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부장군으로 활약하신 자운스님은 이 비희를 본떠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수라는 머릿돌에는 귀면이라는 귀신얼굴이 조각되어있고 이수 꼭대기엔 여의주와 같은 보주가 있습니다. 이 나무 이름 아시는분 계세요? 배롱나무라고 하고 백일홍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나무를 간지럼 태우면 나무 끝이 흔들린다고 하여 간지럼나무라고 불립니다. 착한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껍질을 다 벗어 버리듯 스님들 또한 세속을 벗어 버리고 불법에 정진하라는 마음으로 사찰에 많이 보이는 나무입니다. 선비들 기거처에도 심는데 청렴을 상징합니다. 사찰안과 사찰 주의의 산에 동백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화재입니다. 동백나무는 수분이 많아 방화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사찰의 두번째문인 금강문입니다. 금강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네.. 강하고 단단한 금강을 떠올리시죠? 금강문에는 덩치 좋고 힘이 센 금강역사 두명이 문지기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형태를 취하는 나라연금강은 코끼리의 백만배의 힘을 가지고 있고, 방어의 형태를 취하는 부처님을 경호하는 야차신 밀적금강이 있습니다. 두 금강역사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있죠? 금강저라고 하는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금강석으로 만든 무기입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천하무적의 무기라고 합니다. 나라연금강 옆에 있는 문수동자는 청사자를 타고 있는데 불교에서 청색은 지혜를 상징하고 밀적금강 옆에 흰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는 실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지혜를 얻어, 나갈 때 실천을 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이곳은 천왕문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부처님을 호위하는 사천왕을 모시고 있어 사천왕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개성만큼 하는 일도 다른데요, 사천왕중 최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왕은 북방다문천왕 입니다. 유일하게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항상 입을 벌려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보탑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 다른 사찰에는 일주문 다음에 천왕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역사의 무인과 사천왕과 역할이 겹치게 되면서 금강역사들은 점차 없어지게 되고 사천왕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왕의 발밑에는 악귀가 고통스럽게 있는데 화엄사는 아무것도 없죠. 금강문에서 한번 천왕문에서 한번 더 지키기 때문에 그만큼 철통수비를 하고 있어서 악귀가 들어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찰 예절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계단이 몇 칸인가요? 네.. 한칸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가운데 길은 왕이나 주지스님, 영혼이 맑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보통은 양옆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같이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돌을 보면서 올라와 주세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돌이 길게 서있죠.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이것은 당간지주입니다. 사찰의 존재를 표시하는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도시안의 평지가람은 일주문을 세우기 어려워 이 당간지주를 세웠습니다. 점점 산지가람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주문 양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지대가 돌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당간지주는 일주문 밖에 세워지는데 왜 절 중간지점에 있을까요? 화엄사는 풍수지리상 항해하는 배의 형태입니다. 중심부에 돛처럼 세웠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화엄사를 지나 산 위쪽 연기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곳을 중심부로 보고 이곳에 세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곳은 보제루라는 곳인데요.. 널리 구제한다는 뜻의 보제루는 승려나 신도들의 법요시 집회강당으로 쓰여진 건물입니다. 루는 2층건물을 말하는데 보통 사찰들은 경내에 들어설 때 누각 아래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 대웅전을 만나는 누하진입으로 설계된 것이 많습니다. 화엄사 누각은 우회진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잠시 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제루를 보면 특이한 건축기법이 느껴지죠? 두꺼운 느티나무 기둥을 그대로 설렁설렁 다듬어 건물의 다리로 삼은 모습인데요, 돌위에 그렝이라는 가위를 이용해서 자연석과 기둥이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 맞물리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서양의 건축 양식인 기둥에 홈을 내고 주춧돌에 단단히 박아서 고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서양의 건축 방식이 더 견고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지진 발생시 서양 건축방식은 내려앉거나 반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그렝이 공법을 통해 지은 건물은 돌과 기둥 사이의 공간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충격이 건물에 전달되는 정도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의 뛰어난 건축기술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 무엇인가요? 네.. 대웅전이죠. 그럼 화엄사의 대웅전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왼편에 보이는 건물을 대웅전이라 보는데 그곳은 각황전이고, 대웅전은 오른편 건물입니다. 각황전이 압도적으로 크며, 가람의 배치가 지나치게 비대칭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제루 아래를 통해 들어섰다면 더욱 각황전으로 눈길이 갔을 것입니다. 보제루를 돌아가게 만든 데에는 건축학적인 배려가 담겨있습니다. 보제루 스스로 자신을 낮춰 대웅전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사의 중심영역인 각황전과 대웅전의 경관을 더 감동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대웅전을 돋보이게 하는 노력이 많은데 각황전 앞 계단은 3개인데 대웅전 앞 계단은 4개로 만들어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였고, 대웅전 단청은 화려하게 색을 넣은 반면, 각황전 단청은 바랬지만 단청을 입히지 않아 대웅전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각황전 앞 탑은 화려하게 하여 시선을 빼앗고 대웅전 앞 탑은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대웅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탑이 몇 층 석탑일까요? 7층? 5층? 석탑 층수 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아래 받침돌을 기단으로 하는데요.. 기단은 층수로 세지 않습니다. 탑신부라는 중간지점에 탑 끝에 지붕처럼 살짝 들리는 부분을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옥계석이 있는 부분만 세면 탑의 층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세어볼까요? 네.. 오층석탑이죠. 이곳은 동쪽에 위치해있어 동오층석탑입니다. 동오층석탑은 기단도 단층이고 아무런 조각상이 없이 수수해 보입니다. 이탑은 서쪽에 있어 서오층석탑으로 2층의 기단이고 탑에 12지신, 여덟무리의 신들, 사천왕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조각과 장식이 많아 상대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괘불지주인데요, 부처님오신날이나 법회 행사때 법당에서 전부 법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야외에 괘불(국보로 지정된 영산회괘불탱)을 거는 괘불 지주입니다. 괘불 혹은 탱화는 사찰의 그림을 말합니다. 사찰 안의 넓은 야외에서 여는데 여러 사람이 몹시 소란스럽게 법석을 떠는 것을 의미하는 “야단법석”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기념촬영 할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자유시간에 앞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을 찍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분후 대웅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적멸보궁이란 무엇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인한 전각을 뜻하는데, 화엄사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에 없습니다. 뒤늦게 사사자삼층석탑에서 진신사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연기조사의 사리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
마무리	여러분 이곳에서 바라보는 대웅전의 지붕선과 산봉우리의 조화가 아름답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사찰에 오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받았던 좋은 기운과 위로를 일상에 돌아가서도 오래도록 간직하셔서 힘들때나 지칠때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는 장소입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작지만 큰 추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 속 : 지리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
성 명 : 정 정 섭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사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운영목표	화엄사의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의 문화재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로움을 느끼고 프로그램을 통해 소양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해설주제	화엄사의 숨겨진 문화유산(마이너)
해설소재	금강역사와 사천왕의 지물, 구시, 벽암대사각성비, 헌식대, 방화수림대, 당간지주, 석연지, 돌계단, 청기와, 화장, 원통전앞사사자석탑
운영장소	화엄사 일주문 ~ 대웅전 앞 (안내거리 약 300m)
운영시기	연중
모니터링 주기	월 1회
소요시간	60분
주요대상	가족 및 일반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화엄사의 전체적인 소개	• 인원 확인 및 주의사항 • 남도 사찰의 특징 • 지리산에서 화엄사의 역할 • 역사 속 화엄사의 인물 소개 • 화엄사의 문화재적 가치	구급가방 및 선물	화엄사 일주문 앞	5
주제별 해설	사찰의 나무 관찰하기, 사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 느티나무, 배롱나무, 보리수, 동백나무, 모과나무, 홍매화, 야매(봉천암 옆), 올벚나무, 대나무		자연물 부근	20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 이해하기	• 금강역사와 사천왕의 지물, 구시, 벽암대사각성비, 헌식대, 방화수림대, 당간지주, 석연지, 돌계단, 청기와, 화장, 원통전앞사사자석탑		문화재 부근	25
	왜, 화엄사인가?	• 공간의 편의성에 의해 형성된 가람의 형태에서 보이는 조상들의 고민과 지혜		화엄사 중심공간	5
마무리	교훈	• 보제루의 현판에서 배우는 '배려의 정신' • 원통전 앞에서 관음보살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 마무리 및 정리		원통전 앞	5

해설프로그램 진행 시나리오

해설프로그램

사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활동장소 화엄사 일원
소요시간 60분
참가대상 가족
참가인원 15명 내외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동기유발	안녕하세요. 오늘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직원분, 그리고 해설사 분들을 모시고 해설하게 되어서 영광이기도 하고 긴장이 돼서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모두 오신 것 같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불교 문화재가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많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문화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리산의 여의주라 불리는 화엄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주제별 해설	여러분들은 문화재에 대한 상식이 많은 분들이어서 눈치를 채신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찰의 입구와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다른가요? 아, 많이 깨끗하다고요? 1988년에 중창(보수)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듯이 사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달지 않고 담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 화엄사는 일주문도 널문짝을 두 짝 달았고 좌우로 막돌쌓기담이 이어져 있어 문짝을 닫으면 사찰 경내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 남도 사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등 왜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곳이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정유재란 때 호남의 관문 석주관에서 승병 300명이 왜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싸울 때 화엄사에서도 승려 153명도 참전하여 왜군에 맞서 싸웠으나 전멸하였다는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화엄사는 풍수지리적으로 바다를 향해 나가는 배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 담을 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데 도선국사가 물로 설명한 것이 곧 왜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법회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밥을 비벼서 내놓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물건은 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엄사는 왜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 빠르게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빠르게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쭉~서서 걸어가며 밥을 퍼 먹는 스님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 암울했던 시대를 생각하면 슬프기도 합니다. 염라대왕이 화엄사 구시를 좋아해서 화엄사 구시를 봤다고 하면 극락으로 보내준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헌식대는 '먹을 것을 바치는 곳'이란 의미로, 주변 다람쥐나 산비둘기들을 위해 남은 음식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화엄사의 헌식대는 두꺼비 모양으로 일본의 패망을 기원하던 어느 스님께서 각황전 앞에 조성한 것인데 섬진강의 섬자가 두꺼비 섬자인데서 착안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1940년대 초에 일제의 수탈이 극심하던 시기에 일본의 기운을 꺾을 방법을 찾던 화엄사의 어느 스님은 고려말에 섬진강을 따라 침범하던 왜구를 몰아냈던 두꺼비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두꺼비 섬자를 써서 섬진강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옛 이야기를 듣고 두꺼비 모양의 헌식대를 각황전 앞에 놓았다고 전해집니다.	30분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국일도대선사비명은 벽암대사각성비라고도 부르는데 비문이 완벽하게 남아 있으며, 쌍계사와 전주 송광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비의 이수에는 귀면(귀신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고, 이수 꼭대기에는 여의주와 같은 보주(寶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받치고 있는 동물이름은 연으로 머리는 용(龍), 몸은 거북이에 날개를 달고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날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충무공의 군사이며 부장군으로 활약하신 자운스님이 연기존자께서 타고 오신 연의 모습을 본떠 거북선을 만들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옵니다. 이 동물이 바로 연이요, 거북선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수(머리), 비신(몸), 귀부(받침) :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간다. 화엄사 경내는 물론 건물 뒤쪽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숲을 이룬 나무가 동백나무인데 사찰 주위에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이유는 동백나무가 불에 강하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사찰을 지키기 위한 방화수로 조성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화재가 잦은 봄철 참나무 종류들은 낙엽이 져서 나목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불에 잘 붙지 않아 동백나무 뒤쪽으로 조성해놓았습니다. 맨 마지막이 불에 약한 침엽수로 자연 수림대입니다. 사찰에 화재가 잦다보니 화재 관련 벽사문화도 쉽사리 만날 수 있습니다. 용마루 끝에 장식한 치미와 용두, 물고기 형상을 한 목어와 풍경, 그리고 연꽃 그림, 지붕의 '海'자 망와 등등 물과 관계있는 것들을 화재 벽사물로 장식했는데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치미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물을 뿜어내는 어룡형(魚龍形)으로 그 의장이 변형되고, 점차 용두(龍頭)·취두(鷲頭) 등의 새로운 장식기와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치미의 형태에서 벗어나 퇴화되고 있습니다. 장식물이 아닌 것도 있는데 통도사에는 전각의 모서리에 소금단지를 얹고, 해인사에서는 땅에 소금단지를 묻어두는 것도 소금이 바다를 상징하기 때문에 불을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강문을 지키고 있는 금강역사(力拔山氣蓋世)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금강역사들이 들고 있는 지물은 금강저로 천신들이 소유하는 인도 고대의 무기입니다. 인도에서는 '바즈라파니', 간단히 줄여서 '바즈라'라고 하는데 벼락, 몽둥이, 번개로 번역하며 금강역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여러 신과 역사(力士)들도 이 무기로써 적을 항복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사찰에서는 일주문 다음에 천왕문이 나오는데 화엄사는 한 번 더 불국토의 공간을 청정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금강문(금산사, 수덕사, 법주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동서남북에서 부처님을 호위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천왕이 있는 곳으로 천왕문 또는 사천왕문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방색인 청 적 황 먹 흰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도의 사천왕의 조각은 귀인의 모습이었으나 대승 불교권에서는 한결같이 장군과 같은 무인의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금강역사의 무인이 사천왕과 역할이 겹치게 되면서 금강역사들은 점차 없어지게 되고 사천왕이 금강역사의 역할까지 맞게 되면서 무장의 모습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왕들 가운데 부처님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맨 뒷자리인 북쪽에 자리잡고 계십니다. 불교는 중앙아시아를 통해 동아시아인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전래가 되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존귀한 윗사람을 맨 북쪽 끝에 두는 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동방지국천왕은 음악의 신인 건달바왕의 우두머리로 지물(持物)로 비파를 들고 있으며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얼굴은 청색으로 사천왕 중 가장 온화하고 입을 벌린 모습입니다. 항상 음악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니 가정과 나라는 안락하고 부강해져 자연스럽게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어 고맙습니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분인 지국천왕의 인자한 미소를 바라다보면 좋겠습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남방증장천왕은 남섬부주(南贍浮洲) 즉 수미산의 남쪽을 지키며 불자들의 지혜와 복덕을 늘려주고 이익을 증장시켜주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물은 번뇌를 끊는 칼을 들고 얼굴은 적색으로 입을 꽉 다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번뇌를 끊어버리면 바로 지혜가 나오므로 번뇌를 끊는 취모검(吹毛劍: 가벼운 털-번뇌)을 들고 중생의 지혜와 복덕을 증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장천왕 앞에서는 “증장천왕님의 예리한 칼로 나의 어리석음을 모두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하는 마음으로 예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방광목천왕은 명칭 그대로 눈을 넓게 부릅뜨고 눈으로 나쁜 것을 물리치고 나쁜 말을 굴복시키며, 인간의 선악을 살펴 그것에 상응하는 상과 벌을 주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지물로는 천왕의 손에 용과 여의주을 잡고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여의주를 주어 모든 일을 이루도록 상을 주고, 혹여 잘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용을 풀어 비바람을 일으켜 괴롭게 함으로써 반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북방다문천왕은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도록 중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물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보탑(寶塔)을 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천왕의 경우 통일신라시대부터 거의 모두 탑을 지니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 방향 및 명칭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문천왕의 얼굴 모습은 흑색으로 사천왕 중 최고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유일하게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항상 입을 벌려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것은 당간지주(幢竿支柱)라고 하는데 당을 달아 두는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당간의 좌우에 세우는 돌기둥을 말합니다. 원래 당간지주는 일주문 밖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곳에 세워져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연대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곳이 신성한 사찰이라는 것과 사찰의 영역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당간이란 법회 등 의식을 거행할 때 당(깃발)을 걸기 위해 세운 깃대를 말합니다. 도선국사가 화엄사의 형국이 커다란 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돛대를 상징하는 당간을 이곳에 세웠다는 설과 당간지주를 세울 당시에는 일주문 밖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화엄사 가람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사찰의 경내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설 등이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당간은 두 개의 돌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왼쪽의 돌과 오른쪽의 돌이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좌우지간’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좌우당간’에 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왼쪽의 돌과 오른쪽의 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에서 ‘이렇거나 저렇거나’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보제루로 다른 사찰에서는 만세루라고도 부릅니다. 튼튼한 느티나무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남성미가 느껴집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보통 누하진입(樓下進入)이라고 해서 경내에 들어설 때 누각 아래로 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이 많으나 화엄사의 누각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엄사 보제루는 주춧돌이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자연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주춧돌이 잘 다듬은 매끈한 돌이라면 기둥이 밀려갈 수 있지만, 한옥의 경우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 서 있어서 쉽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울퉁불퉁한 면이 기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것이 만날 때 하나의 모양이 거칠고 울퉁불퉁해도 다른 하나의 모양이 그 거친 모양에 맞추어 감싸줄 수 있다면 그 둘의 만남은 세상 무엇보다 더 견고한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하고 미워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마음에 어떻게 맞추어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앞면의 현판은 '보제루'인데 후면은 화장(華藏 : 빛날화, 감출장 – '빛나지만 감춘다')이라 쓴 현판이 있는데 종교적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석파 이하응의 글씨를 흉내 내서 썼다고 합니다. 주불전 앞에 있는 건물이 불이문인데 화엄사에는 왜 불이문이 없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보제루가 불이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사에는 청기와 3점 있는데 한 번 찾아보실까요?(약간의 시간을 준다.) 대웅전, 각황전 용마루 가운데에 각각 하나씩 있고 박물관에 1점이 있습니다. 청기와는 조선시대에 왕실에서만 사용한 특수한 기와로 궁궐 등에서만 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기와는 궁궐에서 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찰에서도 사용한 예도 있는데, 조선시대 왕실 사찰이었던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의 대장전 터에서 5점의 청기와가 출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기와는 곧 왕실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아 각 일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기와도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함께 하사된 물품 중 하나로 보입니다. 청기와는 사찰의 중요한 전각에 일부 사용되는 이유가 벼락을 막기 위한 피뢰침과 같은 용도로 얹혀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뢰침의 작동원리나 구성으로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석연지는 불전 앞에 놓고 연꽃을 기르던 석조인데 연꽃 자체가 부처님을 상징하듯 부처님의 발우라 하기도 하고, 사찰에서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화재였기 때문에 위급할 때 방화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정면 계단은 어느 절이고 3개(하나의 계단을 3 칸으로 구분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인데 이 절만 유독 4개라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화엄사라는 절 이름이 의미하듯 이 절은 화엄종 사찰이고 화엄종의 화엄법계(華嚴法界)는 이법계(理法界), 사법계(事法界),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 등 4가지 법계가 있다고 하는데 대웅전 계단이 넷으로 나누어진 것은 화엄 4법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각황전 앞의 돌계단은 디딤면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대웅전 앞의 돌계단은 디딤면이 숨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두 계단을 대비시켜 구성한 것으로 우리 문화의 한 특성을 느낄 수 있는데, 즉 우리의 전통적 문화 속에는 인공적 일치, 획일성에 대한 거부의 몸짓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그것들의 조화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국사에서 복잡한 모양을 지닌 다보탑 앞의 루의 기둥은 단순하게 처리하였고 단순한 모양인 석가탑 앞의 루의 기둥은 복잡하게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다양성과 조화를 추구한 것을 볼 수 있다. 경복궁에서는 남행각과 동행각의 광창의 창살을 다르게 구성하여 빛이 들어오는 양태를 다르게 하고 자칫 지루한 느낌이 들 수 있는 행각의 복도에 변화를 주었다. 다양성과 조화를 중시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움,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화엄사는 산지 가람형이기 때문에 불국사처럼 평지가람처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가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편의성에 의해 그때마다 가람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마무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은 이곳 원통전 앞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전각인데 주불전일 때는 원통전이라 하지만 부속 건물일 때는 관음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엄사도 두 개의 주불전인 각황전과 대웅전이 있기 때문에 관음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차치하고 관음보살은 천수천안이어서 어디든 볼 수 있고 어디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동료이거나 친구이거나, 즉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이 관음보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명당은 어디일까요? 최고의 명당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좋은 이웃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최고의 명당이 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 속 : 지리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
성 명 : 이 재 정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화엄사 탐방
운영목표	유서깊은 화엄사 사찰을 살펴보고 탐방객의 문화적 수요충족과 탐방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해설주제	화엄사이야기
해설소재	화 엄 사
운영장소	화엄사 일주문앞 등 사찰경내
운영시기	12월
모니터링 주기	분기 1회
소요시간	35분
주요대상	일반성인15명 (적정인원 15명 내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인사 소개	인사 및 화엄사 창건등 소개	수신기	일주문앞	0.5
주제별 해설	일주문	일주문의 의미 및 현판유래	수신기	사찰경내	2.5
	벽암선사비	벽암선사비명칭 ,의미부여 및 설화			2.0
	돌항아리.	돌항아리조성 및 용도 ?	수신기	사찰경내	1.0
	전투경찰공적비	차일혁총경의 사찰보존 및 이후공적?			2.0
	금강문	금강문의 의의및 보살의미?			2.0
	천황문	사천황의 의미부여및 의의			2.0
	당간지주	당간지주의미 및 설화			2.0
	보제루 등	보제루 운고루 범종각 의미			10.0
	대웅전	대웅전의 대표성 및 보존실태			5.0
	각황전	각황전의 건립설화 및 중요성			2.0
	화엄사사사자 3층석탑	석탑보존실태 및 상징성			1.5
	각황전앞 석등	석등 등기타 사찰부속사용도등			2.0
정리 및 마무리	사찰의 역사성	화엄사의 문화적 중요성 및 재방문 권유			0.5

해설프로그램 진행 시나리오

해설프로그램	화엄사 탐방	활동장소 화엄사 일원 소요시간 35분 참가대상 가족 참가인원 15명 내외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동기유발	안녕하십니까? 지리산생태탐방원에 근무하는 자연환경 해설사 이재정입니다 여러분의 지리산탐방을 축하합니다 이곳은 지리산의 여의주 화엄사입니다. 백제성왕22년(서기544년)연기조사가 창건하였습니다 몇해전 우리나라에서 사찰10개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했습니다. 화엄사는 제외되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의 사랑과 관심으로 반드시 지정되어 우리국민이 더높은 문화적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5
주제별 해설	일주문 절에 가시면 제일 첫번째 관문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일직선상에 두기둥을 세워 지붕을 얹는 방식으로 건축 되는데 일반 건축의 경우 네기둥에 지붕을 얹는 방식으로 건축이 되는것에 비하여 독특하게 건축하는 이유는 일심으로 부처나 진리만을 생각하여 오로지 성불하겠다는 일심을 담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여기 현판에 황명숭정9년 세제 병자중추 의창군 광서라고 되었는데 명나라 마지막황제연호 숭정9년은 1636년에 해당하고 의창군은 선조임금의 8번째왕자이며 당대 명필가로서 한석봉체입니다 의창군이 한때 역모사건에 연좌되어 정치적 탄압을 받습니다. 이유는 홍길동의 저자이고 역모사건으로 능지처참을 당했던 허균이 처숙부였다는 이유였습니다만 실제이유는 선조의 지지를 못받고 불안전한 가운데 왕권을 수행하던 광해군이 선조의 총애를 받던 의창군을 견제하고 싫어했던 이유입니다. 인조반정으로 정치적 해금이 되어 이 현판을 썼던 것입니다 일주문옆에 담이 쌓아진 경우는 보기 어려울겁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것입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화엄사지형이 항해하는 배의 형국이어서 항해때 외부의 침입을 막기위한 시설로써 쌓았다는 설이고 둘째 화엄사가 섬진강의 기슭로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불국토를 진입하려면 반드시 일주문을 통과해야합니다 다음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30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벽암대사각성비(국일도대선사비) 벽암대사각성비라고도 합니다 인조때 남한산성 공사를 마친후 보은천교 국일도대선사비란 시호를 받았는데 국일은 나라제일 도는 총책임자 큰비라는 시호에서 알수있듯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조선은 억불숭유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내려진 시호는 큰 배려입니다. 비의 윗부부을 “이수” 가운데를 “비신 ” 밑부분을 “귀부”라 칭합니다. 이수는 용의 둘째아들로 높은곳에서 멀리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 귀부는 용의 첫째아들 비희로 무거운 것을 짊어어지는 것을 좋아한다합니다. 비석을 받들고있는 동물은 용두구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하면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을 생각할것입니다.이순신장군의 부장이고 군사이신 자운스님이 이런형태의 모양으로 거북선을 만들 것을 제안해서 만들어졌다고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오고있습니다 돌항아리 여기에 우물과 같은 형태이나 돌독입니다. 얼른보아서 냉장고가 없던시절 냉장고 라고 하신분도 있습니다 내부구조를 보면 바닥에 네모진 화강석을 깔고 위로는 작은 네모진 돌로 쌓아올렸읍니다한켜에 보통돌덩어리10개를 사용하여 6켜를 쌓아올렸고 아래위는 작은돌로 가운데는 큰돌을 사용하여 쌓았습니다 돌의 짜임은 치밀하여 이음새에 별간격이 없을 정도입니다 독이 만들어진 년대는 기록이 없어 알수없으나 다듬고 설치한 기법으로 보건데 고려초기 또는 고려중기에 해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주사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용도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풍수지리설로 볼 때 화엄사는 지형이 항해하는 배의 형국을 닮아 항해중에 필요한 물을 담을 항아리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투경찰 공적비 차일혁총경 공적비입니다 경찰관공적비가 절에 있어 의아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설치연유는 이렇습니다 50년대 지리산은 빨치산의 주무대였고 사찰은 생활근거지 였습니다 특히 화엄사 같은 절은 그사람들의 생활근거지였습니다 상부에서는 절을 초토화 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차일혁 총경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절을 태우는데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데 천년이상 세월로도 부족합니다면서 차일혁 총경은 문짝만 제거하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렇게하여 불태워지지않고 존치한 절이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백양사 등이 소실위기에서 구해졌고 빨치산을 소탕하는 공적을 올렸습니다 명령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후 1958년 공주서장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물놀이를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90년대말 화엄사내 공적비가 건립되었고 2010년대 초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경무관으로 승진하였고 보훈처에서는한국전쟁 영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 이 자리에 공적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종전의 공적비는 대전현충원으로 이설하였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연속극에서 하림이 차일혁 총경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금강문 외부와 경내를 구분하는 문이 일주문이라면 경내의 대문역할을 합니다 인왕상이라는 두명의 금광역사가 지키고 있어 인왕문이라고도 합니다 금광역사 의미는 불법을 훼손하려는 사악한 무리를 경계하고 잡신과 악귀를 몰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는 나라연금광 왼쪽에는 밀적금광 나라연금광은 코끼리힘의 백만배이며 입을 벌려 “아”하는 소리를내면서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약자로 깨달음에 이른이 라는 뜻입니다 나라연금광옆에 빨간옷을 입고 사자를 타고있는 문수보살은 사람의 지혜를 밀적금광옆에 청색옷을 입고 코끼리를 타고있는 보현동자는 실천을 각각 상징합니다 흔히 입을 열고 있는 역사를 ‘아금강역사’, 입을 다물고 있는 역사를 ‘훔금강역사’라고 하는데, 나라연금강은 입을 크게 열어 "아" 하고 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밀적 금강은 입을 굳게 다문채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왕문 천왕문은 흔히 사천황이 지키고있어 사천황문이라고도 합니다 천황문의 위치는 대웅전과 일주문사이에 설치하는데 이는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는 것으로 사천황이 도리천의 중턱을 지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것입니다 사천황문을 넘어서면 도리천의 세계 즉 신성의 세계인것입니다 천황은 고대인도종교에서 숭앙하던 잡신들의 왕이었으나 석가모니에 귀의하여 불법과 부처를 수호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수미산의 중턱지점 동서남북에서 불법을 수호하고 인간의 선악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동쪽을 지켜주는 지국천황 남쪽을 지켜주는 증장천황 서쪽을 지켜주는 광목천황 북쪽을 지켜주는 다문천황입니다 천황문은 사찰을 수호하고 악귀를 몰아내어 청정도장을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엄숙하게하여 사찰이 신선한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수행자 마음속의 좌절과 번뇌를 없애 한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강조합니다 당간지주 오른쪽에 보이는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당을 달아두는 장대를 지탱하기 위하여 당간의 좌우에 세워둔 돌기둥을 말합니다 당간지주는 보통의 경우 일주문 밖에 설치하는데 경내 중간지점에 세워졌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설치년대도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람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를 나타내며,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로 세워진 것이다 화엄사는 경내에 설치되었는데 두가지 설이있습니다 첫째 풍수지리설에 의한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엄사가 항해하는 배의 형국이어서 항해시 필요한 깃발을 위해 설치했다는설 이고 둘째 종전에 이곳이 연기암의 입구로서 설치되었다는 설입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보제루 운고루 범종각 등 이앞에 보이는 건물이 보제루(일명 만세루)하고 합니다 느티나무기둥재로 되어있어 오랜세월에도 우리에게 장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에 들어갈 때 누하진입(樓下進入)이라해서 대웅전을 바라보면서 누각아래로 진입하도록 건축되었읍니다만 화엄사는 동쪽으로 돌아가도록되었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후 돌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普濟는 널리구제한다는 의미로 사찰에서 강당은 불교의 교설을 강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합니다 석가모니가 생존했을때도 존재했다고합니다 본래 강당은 법당뒷편에 배치되었으나 오늘날 남아있는 건물을 보면 전후좌우 어느곳이든지 있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법당자체가 강당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사찰의 법요식은 이곳 보제루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이유는 대웅전이 일반대중를 수용할 만큼 넓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겠읍니다만 보제루처럼 대웅전을 바라보면서 법요식를 갖는게 그전부터 내려오던 법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랭이공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6. 경주시에서 규모5.8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건축물등의 피해가 있엇습니다만 피해가 없거나 극히 피해가 아주적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랭이공법에 의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기둥재의 밑면을 자연석의 형태와 같이 제도하여 정밀하게 깍아서 쌓은 전통건축방식을 “그랭이 공법”이라합니다 서양건축양식은 기둥에 홈을 내고 주춧돌을 단단히 박아서 고정하는것과 다른 형태입니다 서양건축방식이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그랭이 공법에 의한 건축물이 내진이 잘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동틀돌을 추가하는 기술이 더해져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만들면서 전문가들은 과거 신라인이 활용한 내진설계기술은 지금도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동틀독이란 자연석을 쌓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박아둔돌을 말합니다 처음개발한곳은 고구려이며 오랜세월을 견뎌낼수있었던 것은 이공법에 의한 축성술덕분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보제루 오른쪽에 운고루가 있습니다 운고루에는 목어 운판 법고가 있습니다 목어는 용두어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가 자지않고 열심히 도를 닦으라는 뜻으로 목어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운판은 구름모양의 판으로 구름위에 해와 달을 좌우에 배치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허공을 헤메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고는 법요에 쓰이는 북이란 의미로 북소리를 통하여 모든축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몸통은 나무로 만들고 양면은 소의 가죽을 붙이면서 암소와 숫소의 가죽을 양면에 부착하는데 이는 음양이 잘조화되어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왼쪽 범종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종소리를 鯨鍾 범종소리를 鯨音이라고 합니다 범종에 갑자기 고래가 등장하는가 의아해 할겁니다 이는 종의 꼭지에 있는 장식되어있는 용(포뢰)에 얽힌 전설에 연유합니다 포뢰는 동해에 사는 고래를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고래모양으로 깍아 만든 撞으로 종을 치면 용이 놀라 큰소리를 지르고 따라서 종소리도 우렁차게 울린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범종을 치는 본뜻은 지옥의 중생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갖도록하는 한편 불법의 장엄한 진리를 깨우치는데 있습니다 보제루 동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대웅전은 항상 가람의 중심전각으로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화엄사는 각황전이 규모가 훨씬커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돌아가면 원근법에 의하여 가까이 있는 대웅전은 크게 멀리 있는 각황전은 적게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두건물이 동등하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대웅전의 왜소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면의 현판은 보제루인데 후면은 華藏이라쓰여져있습니다 종교적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이글씨는 추사김정희가 흥선대원군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썻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과 추사김정희는 이종사촌간입니다 저기앞에 있는 돌기둥을 괘불대 괘불지주라고 합니다 이 괘불(掛佛)은 그림으로 그려서 걸어 놓은 부처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로 법당 앞 마당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긴 막대를 양쪽에 세우고 막대의 꼭대기에 장대를 가로질러 묶은 뒤 거기에 괘불을 매어답니다 괘불을 내걸기 위해 법당 앞에 세운 돌기둥을 괘불석주, 또는 괘불지주라 하고, 괘불을 높이 걸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대를 괘불대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야단법석은 법당이 아닌곳 숲속이나 넓은 광장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대웅전 바로 앞 전각이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앞에 계단이 보통 3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화엄사는 4칸의 계단으로 설치되었는데 화엄사법계를 상징합니다 즉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애법계 사사무애법계입니다 대웅전을 대웅보전이라고도하며 항상가람의 중심전각으로 일반인이 가질수 없은 큰힘이 있어 도력과 법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영웅을 모신전각이라 뜻입니다 대웅은 고대 인도 하마비라를 번역한 말로 법화경에서 위대한 영웅 즉 대웅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삼신불은 법신 보신 화신으로 구별하며 일반적으로 법신은 비로자나불 보신은 노사나불 화신은 석가모니불을 가리킵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우리나라 대웅전에서는 선종의 삼신설에 따라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모십니다 삼신불을 봉안하고 있는 사찰은 화엄학을 중시하였던 사찰임을 시사하며 화엄사의 대웅전도 이경우에 속합니다 현판이 대웅전이면서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 아니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노사나불 왼쪽에 석가모니불로 협시되어 삼존불형태를 이루는데 비로자나불이 화엄사 중요부처이기 때문에 주전각 본존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비로자나불이 봉안되면 대적광전이라고 해야지만 현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의창군이 궁중의 어른으로 다시 수정해서 써달라고 할수 없어 그대로 존치해놓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물을 인조8년(서기1630년)벽암대사가 건립하였습니다 경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각입니다 전내에는 삼존불이 봉안되었으며 영조33년에 제작한 후불탱화가 장엄합니다 건물의 하중을 주로 기둥이 받는 구조가 주심포형식 이라하고 기둥과 기둥사이도 받는 구조가 다포형식인데 화엄사대웅전은 다포형식입니다 건물안쪽은 우물정자 모형으로 장식이 되었고 삼존불위쪽으로 장식적인 성격을 띠는 지붕모형의 닫집을 놓아 엄숙한 분위기를 한층높이고 있습니다 건물전체적으로 보면 정면5칸 측면3칸 팔작지붕 건물로 각황전이 없다면 웅장하다는 말이 딱들어맞습니다 화엄사의 건물은 임진왜란이후 지어진 건물로 건축형식의 특징과 균형이 잘 잡혀있어 조선중기 이후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있습니다 각황전 각황전이전에 장육전이 있었습니다 장육전이라는 이름은 석가모니불의 몸을 장육금신이라고하는데서 유래합니다 옻이 이건물을 지을 때 금색으로 입힌 석가모니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각황전으로 바뀐 것은 숙종28년(서기1702년)일입니다 각황전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불사재원마련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있는데 밥을 짓던 공양주보살이 운명처럼 숙종의 어린공주를 우연히 만났고 그때까지 펴지지 않았던 손이 펴졌고 손바닥에 장육전이라는 글씨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숙종이 중창비용을 하사하였고 각황전 사액까지 내렸다는 이애기입니다 각황전이 대왕을 깨우쳤다는 의미로 각황전이라 했다고 전합니다 허지만 숙종은 공주가 없어 신빙성은 적으며 부처를 깨달음의 왕이라는 뜻으로 각황이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각황전 앞의 석등 서5층석탑 동5층석탑이 서로 상이하게 배치되었는데 동시에 이를 바라보면 마치 일직선상에 놓인것처럼 보이게됩니다 각황전 석등 서5층과 대웅전 동5층석탑이 일렬로 각각 놓이게 되면서 탁월한 시각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동5층석탑은 보물132호 서오층석탑은 보물133호입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주제별 해설	화엄사4사자3층석탑 각황전에서 108계단을 올라서면 국보35호 화업사4사자삼층석탑입니다 지금은 보수중이라서 조감도를 보면서 해설을 들은후 보수현장을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래층 기단에는 천인상을 새겨놓았습니다 위층기단에는 네 마리의 사자 모퉁이에 세우졌으며 탑가운데 합장하고 있는분이 절을 창건하신 연기조사님의 어머니입니다 맞은편에는 연기조사가 어머니에게 차를 공양하는 모습을 묘사해놓았습니다 연기조사님의 효심과 불심을 상징하는 석탑으로 효대라고도 합니다. 가장주목되는 위층기단은 암수 두쌍 네 마리의 사자를 각모퉁이에 기둥삼아 세워 놓은 독특한 구조로 모두 앞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채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있습니다 사자의 각표정이 히죽웃거나 슬퍼하거나 찡그린 모습 환한 얼굴등 제각각인데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있습니다 각황전앞석등 등기타 국보12호 화엄사 각황전 석등입니다 국내최대석등으로 화각에 불을 밝히려면 사다리나 올라설만한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각황전과 크기가 조화롭지 못한 것은 이전 전각 장육전과 조화롭게 건축되었으나 임진왜란때 같이 타지않고 존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석등이 과연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 석등을 조사해본 결과 불을 밝혔던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부처님의 자비로우심과 지혜로움이 온세상을 빛처럼 밝혀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석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원통전앞 4사자석탑입니다 통일신라9세기에 화엄사4사자삼층석탑을 모방하여 만들었습니다 네 마리가 사뿐하게 몰려있는 이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으나 국보35호 화엄사사사자3층석탑에 비하여 미적인 아름다움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한전은 석가모니 제자인 나한을 모신 전각입니다 홍매화는 각황전건축기념식수로 계파선사가 식재했습니다 꽃은 검은 만큼 흑매화라고도 합니다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곳입니다 세상의 모든소리를 들음으로서 소래를 내지못하는 지렁이나 기타미물의 애원을 듣고서 환란을 구해주는 보살입니다 이곳영전은 고승들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대웅전앞에 있는 이석조물은 석연지입니다 불전앞에 놓고 연꽃을 기르던 석조이고 연꽃특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유명계(저승세계)시왕(十王)을 모신곳입니다 시왕(十王)은 불교에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열명의 왕을 일컫습니다 . 지장보살은 갖가지 장애와 부자유의 감옥들을 부수고 성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보살입니다 적묵당은 처음불도를 닦는 스님이 수행하는 곳입니다.	~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마무리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불교의 3대사찰이라고 하는 해인사 통도사송광사와 버금갈 만큼 비중있는 사찰입니다 문화재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어온 화엄사상의 대표사찰입니다 우리국민모두의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엄사를 잘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도록합시다 오늘의 화엄사 해설을 마치며 기회가 있으면 지리산생태탐방원을 다시한번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 속 : 지리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
성 명 : 박 문 식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화엄사에 들어가면 나와 세상이 바뀐다.**
운영목표	지리산 천년고찰 화엄사 둘레보고 코로나19시대 '나와 전체를 돌아보는'최고의 힐링 프로그램
해설주제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화엄경 명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나는 당신의 부처님" 천년고찰 화엄사 불교문화재와 불교이해 "조화와 겸손 배려" -생김새와 모양 지어진 시기가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가람배치 조화 화엄사상의 근본도량 화엄사에서 되 짚어본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수처작주(隨處作主)
해설소재	화엄사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보제루 대웅전 각황전 국보와 보물 문화재 - 화엄사상, 일체유심조, 일즉일체다즉일
운영장소	화엄사 일원
운영시기	1월 ~ 12월
모니터링 주기	월 4회
소요시간	60분
주요대상	청소년 및 일반인(적정인원 10명 내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지리산 화엄사 소개 및 인사 - 코로나시대 변화 언급 - 일주문 소개(속과 성)	사진첩	- 일주문	10
	일체유심조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① 서로 보이지않게 연결된 무한의 인드라망 ② 누구나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일체유심조 (화엄사 석옹 입구 벽)	5
주제별 해설	화엄사 문화재, 화엄사상 이해	서로다른 문화재들 속에 담긴 조화와 종교적 겸손, 각각의 개체가 만든 전체의 의미 "화엄사상"	사진첩	-	5
주제 심화	코로나19 사찰	코로나는 우리가 함부러 써왔던 자연의 일종의 경고 일즉일체다즉일-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연도 소중하고 각각의 사람도 소중하게 됩니다.		- 각황전앞	5
	각황전	각황전을 구성하는 수많은 나무 모듈 어느하나 없으면 각황전을 이룰 수 없다 인드라망에서 각자는 숨은 보석/ 하나속에 전체가 든 프랙탈 그물망	사진첨 엽전	- 각황전 석등앞	5
	적멸보궁 가는길	일중일체다중일 누구나 보석,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화엄사상의 근본		- 사사자삼 층석탑가 는길	5
마무리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화엄사상을 나와너, 인간과 자연 개체와 전체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나를 좋은쪽으로 변화하고 이웃을 자연을 함께 변화하도록 이끌어 가는게 궁극 목표		- 동백나무 아래	5

해설프로그램 진행 시나리오

해설프로그램

화엄사에 들어가면 나와 세상이 바뀐다.

활동장소 화엄사 일원
소요시간 60분
참가대상 가족
참가인원 15명 내외

구분	내용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리산생태탐방원 자연환경해설사 박문식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안에 자리한 화엄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지리산 산과 물이 참 좋죠? 산과 물은 따로 주인이 있을까요? 법정스님 법문 중에 들은 말인데. “강과 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강과 산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관심을 안으로 기울이면 우리들 사람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대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리산과 화엄사의 주인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에 있으며 천은사, 쌍계사와 더불어 지리산3대 사찰입니다. 국보가 4개 보물은 7개나 되는 대가람입니다. 관람하면서 곳곳의 숨겨진 시간 속 보물을 찾아보면 좀 더 흥미롭습니다. 화엄사는 신라의 문화와 예술이 역대 최절정기 당대 최고의 건축기술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세부 내용 (시나리오)	럼 화엄사로 들어가 우리가 주인이 되어 볼까요? **일주문**  일주문(조선건축사론 1926년) 보통 절을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일주문은 지납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기둥이 일열로 나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측면이 없고, 문에 매달린 널문도 없습니다. 문단속의 기능이 아니라 경계의 기능을 하는 게 일주문이라 그렇습니다. 문 없는 문 일주문도 일종의 문인데 왜 문짝이 없을까요? 보통 첫 번째 관문인 일주문은 세속과 진리로 가는 길 완전 단절이 아닌 언제나 통하고 열린 종교건축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일주문 一柱門은 일심 一心을 가리킨다. 일주문을 지나면서 불자들은 마음을 한곳으로 모은다, 일심으로 불법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을 가다 담는다는 합니다. 세월과 시대에 따라 사찰의 건축물들도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보통 일주문은 문짝이 따로 없는데 화엄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란을 격고 세월이 지나 사찰의 관리 차원에서 대문과 담장이 생겨난듯합니다. 또 하편으로는 풍수지리상 화엄사 가람의 형태가 배의형국과 같아서 물 기운을 막으려고 담을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엄사의 편액은 지리산화엄사 의창군 선조의 8번째 아들(서자)이 내려주었습니다. 위쪽의 대웅전 편액도 의창군 글씨입니다. 아마 왕실에서 내려준 편액을 달면 지방호족이나 관리들로부터 사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편액(扁額)의 '액(額)'은 사람의 이마**를 뜻하는데 이는 건물 전면 높은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편액은 건물의 높은 곳에 걸기 위해 나무판, 종이, 비단 등에 쓴 액자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액과 현판(懸板), 두 명칭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현판은 넓은 의미에서 편액과 기둥에 달아놓는 주련(柱聯) 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럼 일주문을 지나 사찰경내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차일혁** 총경 추모비가 있네요. 사찰에 경찰의 공덕비가 있는 것이 좀 의아하시죠.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은 빨치산의 주 무대였는데, 특히 화엄사와 같은 절은 그들의 근거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군지휘부에서는 절을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차일혁 총경은 명령을 어기고 각황전의 문짝만 떼어내 불사르게 하여 화엄사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절을 불태우는 데는 한나절이지만 절이 오늘에 이르기는 천년이 걸렸다" 전시중 명령불복종은 곧 죽음이라는 어려운 결정 속에 국보 제67호 각황전을 지켜낸 것만 보면 대단합니다. 또 차일혁 총경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아시나요? 이 드라마에서는 하림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차일혁 총경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돌항아리(石甕)** 고려 초기에 조성된것으로 보이며 이 돌항아리는 네모난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항아리처럼 쌓아 만든것 법주사에도 비슷한것이 있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수없고 풍수지리로 볼때 화엄사는 전체적인 형국이 항해하는 배의 모양을 닮아 있어 항해중에 필요한 물을 담는 항아리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여기 벽에 한자가 적혀 있네요.

‘一切唯心造’ / 일즉다다즉일 (一卽多 多卽一)의 원융 (圓融) 사상,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귀결,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 “하나가 곧 일체이다.

〈화엄경〉의 핵심사상을 이루는 이 말은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다
"세상 일은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마음 또한 무상하다”
원효가 화엄사 해회당에서 화랑도에게 화엄사상을 강의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벽암대사비(벽암국일도대선사비)

일주문을 지나 화엄사 경내로 들어서서 오른쪽 첫 번째 건물이 성보박물관인데,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귀부와 이수를 갖춘 큰 비석이 하나 있다. 바로 벽암국일도대선사비(碧岩國一都大禪師碑)로도 불리고, 화엄사벽암대사비(華嚴寺碧岩大師碑)로 불리기도 하는 비석이다. 벽암대사의 부도는 앞서 올린 바 있다. 고려말기 이후 고승들은 분사리 되어 여러 곳에 부도가 세워지곤 했는데, 벽암대사의 경우 화엄사 외에 순천 송광사, 합천 해인사, 완주 송광사에 더 있으며 속리산에 세워졌던 부도는 망실되었다고 한다. 속리산 법주사에는 벽암대사비만 남아있다.



인조 때 남한산성 공사를 마친 후 보은천교원조 국일도대선사란 시호를 받았는데, 나라의 제일이라 해서 국일이고,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도(都)자를 썼고, 큰대(大)자까지 사용하였으니 대단한 시호입니다. 비의 이수에는 귀면(귀신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고, 이수 꼭대기에는 여의주와 같은 보주(寶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받치고 있는 동물이름이 연으로서 머리는 용(龍), 몸은 거북이에 날개를 달고 있다. 이 충무공의 군사이며 부장군으로 활약하신 자운스님이 연기존자께서 타고 오신 연의 모습을 본떠 거북선을 만들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옵니다. 이 동물이 바로 연이요, 거북선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수(머리), 비신(몸), 귀부(받침) :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 ->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간다.
용생구자설 : 용의 아들 9명(첫째 비희, 둘째 이문, 셋째 포뢰...)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불견, 불문, 불언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을 형상화하고, 각 상의 아래에는 해당 구절

不見 남의 잘못을 보려 힘쓰지 말고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보려하지 말라.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살펴야 한다

不聞 산 위의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의 초리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不言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험한 말은 필경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니항상 옳은 말을 익혀야 한다.

금강문

다음은 금강문입니다. 사찰의 수문장역할을 하는 두명의 금강역사가 있고

저희가 들어왔던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이 경내와 외부를 구분하는 문이라면 이 **금강문**은 경내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사찰 입구의 일주문 다음에 있는 문으로, 사찰의 대문 역할을 합니다. 흔히 인왕상이라 불리는 두 명의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어 인왕문이라고도 합니다. 금강역사상은 불법을 훼방하려는 세상의 사악한 세력을 경계하고,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오른쪽을 지키는 역사가 나라연금강(아금강)이고, 왼쪽을 지키고 있는 역사가 밀적금강(훔금강)이다. 나라연금강은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백만 배나 된다고 하고, 입을 크게 열어 '아' 하는 소리를 내면서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강역사와 보현동자상



금강역사와 문수동자상

오른쪽에 보현동자(코끼리위), 왼쪽에 문수동자(사자위)가 있습니다.

보현동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문수동자는 깨달은 지혜의 실천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찰에 들어와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 나가서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문 구조의 사찰에서 금강문은 사천왕문에 흡수되어 역할과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천왕문







이곳이 천왕문인데 여러 사찰에서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불교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 천왕문이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천왕문은 사천왕이 지키는 문이므로 흔히 사천왕문으로도 불리는데 천왕문은 일주문과 법당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는 불교의 세계관에 따른 것으로 사천왕

들이 도리천의 중턱을 지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천왕문을 넘어서면 도리천, 즉 신성한 세계인 것입니다.

사천왕은 고대 인도종교에서 숭앙하였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석가모니에게 귀의하여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왕들은 수미산(須彌山) 중턱 지점의 동, 서, 남, 북에서 그들의 무리와 함께 불법을 수호하고 인간의 선악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사천왕상이 들고 있는 지물은 주로 병장기로서 칼·화살·창·금강저(金剛杵 : 악마를 깨뜨리는 무기) 등과 같은 것이며 북방다문천왕의 경우 반드시 탑을 받들고 있으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크게 변화하여 비파·칼·용과 여의주, 당과 탑으로 정형화하게 되고,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으로 표현되며 북방다문천왕을 비파를 타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천왕문 입구에서 보아 오른편의 대웅전을 향한 쪽에 비파를 든 사천왕상을, 입구 쪽에 칼을 든 사천왕상을 배치하며, 왼편의 대웅전 쪽에 당과 탑을 든 사천왕상을, 입구 쪽에 용과 여의주를 든 사천왕상을 배치한다

또한 사천왕상은 오행에서의 방위색을 얼굴에 적용하여 칠하는 경우가 많은데

- ♣ 동방지국천왕 – 파란색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
- ♣ 남방증장천왕 – 빨간색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푼다)
- ♣ 서방광목천왕 – 흰색 (악인에게 고통을 주어 구도심을 일으키게 한다)
- ♣ 북방다문천왕 – 검정색 (어둠속을 방황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持國天王)은 선한 이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주는 천왕인데 온몸에 동방을 나타내는 오행색인 청색을 띠고 있으며, 왼손에는 칼을 쥐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어 허리에 대고 있거나 손바닥 위에 보석을 올려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增長天王)은 붉은빛을 띤 몸에 화난 듯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용을 움켜쥐고 있으며 왼손에는 용의 입에서 빼낸 여의주를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덕을 증장시켜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풀겠다고 서원을 한 천왕입니다.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廣目天王)은 죄인에게 벌을 내려 심한 고통을 주는 가운데, 도심(道心)을 일으키게 하는 천왕인데, 몸이 흰빛이며 웅변으로 나쁜 이야기를 물리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입을 벌리고 있고 붉은 관을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삼지창과 보탑을 들고 있습니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多聞天王)은 언제나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까닭에 다문(多聞)이라 하고, 검은빛을 띠며 치아가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리고 있으며, 비파를 잡고 줄을 튕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천왕문은 사찰을 지키고 악귀를 내쫓아 청정도량(淸淨道場)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엄숙하게 하여, 사찰이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수행자의 마음속에 깃든 번뇌와 좌절을 없애 한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마다 천왕문이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가까운 순천 선암사는 조계산 주봉이 장군봉이어서 사천왕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천왕문도 사찰의 초기모습과 달리 조선후기에 새로 건립된 것이 많은데 전란을 거치면서 호국불교의 사상도 담았다고 합니다. (북쪽엔 생령좌 밟고 있는게 만주족, 남쪽엔 왜놈을 표현한 사천왕상이 많다.)

당간지주(幢竿支柱)

이쪽에 보이는 것은 당간지주라고 하는데 당을 달아 두는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당간의 좌우에 세우는 돌기둥을 말합니다. 원래 당간지주는 일주문 밖에 위치해야 하는데 왜 이곳에 세워져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연대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곳이 신성한 사찰이라는 것과 사찰의 영역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당간이란 법회 등 의식을 거행할 때 당(깃발0을 걸기 위해 세운 깃대를 말하는데, 당간이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현재 안성 칠장사, 청주 용두사지, 공주 갑사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문화재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화엄사의 형국이 커다란 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돛대를 상징하는 당간을 이곳에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칠장사의 당간과 당간지주의 경우도 칠장사의 지형이 배 모양으로 되어 있어 당간지주로 돛대 구실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산문 구조는 일주문-천왕문-불이문의 순서를 갖추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최근 중수한 사찰을 중심으로 일주문 다음에 금강문이 끼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원래 사찰에 산문은 없었고 당간 또는 찰간이 사찰의 경계였다. 그러고 나서
당간에 당 또는 표찰을 매달아 그 사찰의 소속 종파나 법회를 알려 왔다. 그래서 절 사 寺에 찰간 刹竿 또는 표찰 表刹을 붙여 쓰니, 곧 사찰 寺刹의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당간 幢竿이 석당간으로 남아 있었다. 당간은 이처럼 돌로 만들기도 했지만 나무, 청동으로도 많이 만들어 써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에 나무, 청동으로 된 당간들은 대부분 부식되어 없어지고 석당간도 몇 군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간을 떠받치고 있던 당간지주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지사찰에서는 당간의 역할이 크나 산지사찰에는 역할이 적다.

보제루

앞에 보이는 건물이 **보제루**(창암 이삼만의 필적 - 만세루라고도 부른다)입니다. 단청이 없고, 기둥 또한 오래된 느티나무를 생긴 그대로 사용해 멋스럽습니다. 보통 다른 사찰의 보제루는 누하진입(樓下進入)이라고 해서 경내에 들어설 때 누각 아래로 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이 많습니다. 보제루를 누하진입으로 올라서면 대웅전이 서서히 장엄하게 펼쳐지는 효과를 내기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화엄사의 누각은 동쪽으로 돌아가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제라는 뜻은 '널리 구제한다'는 (Bodhi)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의 큰 강당같은곳이고,
대체로 사찰의 모든 법요식은 이 곳 보제루에서 행해지는데 그 이유는 대웅전이 대중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지 못한 것도 이유지만, 보제루처럼 대웅전을 올려다볼 수 있는 누각에서 법요식을 베푸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법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옛날 건축 공법에 대한 공부를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그랭이 공법'이라고 하는데 지난해(2016년 6월 경주에서 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 발생해서 한바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석을 서로 맞물리게 촘촘히 쌓은 뒤, 그 위에 세우는 기둥의 밑면을 자연석의 형태대로 정밀하게 깎아서 쌓은 전통 건축 방식을 '그랭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석에 기둥을 세울 때 기둥 아래쪽을 자연석 윗면의 굴곡과 같은 모양으로 그린 다음 그 부분을 다듬어서 자연석과 기둥이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 맞물리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서양의 건축 양식인 기둥에 홈을 내고 주춧돌에 단단히 박아서 고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의 윗면을 따라 그대로 기둥을 올린 그랭이 공법보다는, 돌에 홈을 낸 뒤 그 위에 기둥을 박은 서양의 건축 방식이 더 견고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실험 결과 그랭이 공법으로 세운 건물이 지진에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양 건축 방식의 경우 돌에 홈을 내고 기둥을 박은 건물은 지진 발생 시 내려앉거나 반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그랭이 공법을 통해 지은 건물은 돌과 기둥 사이의 공간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충격이 건물에 전달되는 정도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동틀돌을 추가하는 기술이 더해져 더욱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만들면서, 전문가들은 과거의 신라인들이 활용한 내진설계 기술은 지금도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틀돌이란 자연석들을 쌓을 때,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박아둔 돌을 말합니다. 통일신라에 의해 꽃을 피웠지만, 이를 처음 개발한 국가는 고구려이며 고구려의 성들은 대부분 자연지세를 활용하여 지어졌는데, 이들 성이 장대한 세월을 견뎌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공법을 활용한 독특한 축성술 덕분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화엄사 각황전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누하진입으로 들어서면 대웅전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제루 오른편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멀리서
각황전을 보게 되고 원근감으로 대웅전이 왜소해 보이지 않도록 고려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4칸 그리고 각황전의 계단은 3칸으로 만든 것도 시각적인 고려라고 합니다. 나름의 고도로 계단 된 의도성이 내포된 종교건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 가람배치와 동선
까지 의도하고 만든 거 보면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앞면의 현판은 '보제루'인데 후면은 화장(華藏 : 빛날화, 감출장 - '빛나지만 감춘다')이라 쓴 현판이 있는데 종교적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이하응의 글씨를 흉내내서 썼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누각이 있는 사찰에는 불이문이 없는데 아마도 이 누각이 불이문(해탈문)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제루 오른쪽에 범종각에 범종이, 왼쪽 운고각에 목어(龍頭魚身), 운판(구름 모양의 판-구름 위에 해와 달을 좌우에 배치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허공을 헤매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법고(북소리를 통하여 속세의 모든 축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일반적으로 몸통은 나무



로 만들고 양면은 소의 가죽을 붙이는데 암소와 수소의 가죽을 양면에 부착하는데 이는 음양이 잘 조화되어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가 있습니다.

범종은 일명 경종(鯨鐘)이라고도 불리며 범종 소리를 경음이라고 한 것도 여기서 유래합니다. 이는 종의 꼭지에 장식되어 있는 용(포뢰)에 얽힌 전설에 연유합니다. 포뢰는 동해에 사는 고래를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고래모양으로 깎아 만든 당(撞)으로 종을 치면 용이 놀라 큰 소리를 지르게 되고 따라서 종소리도 우렁차게 울린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범종을 치는 본 뜻은 지옥의 중생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의 장엄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데 있습니다.

범종은 새벽에 28회, 저녁에 33회 타종한다. 새벽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곳 하늘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도리천 33천에 각각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타종합니다. 불교에서 보는 우주관이 담겨 있다.

원차종성변법계 願此鐘聲遍法界
철위유암실개명 鐵圍幽暗悉皆明
삼도리고파도산 三途離苦破刀山
일체중생성정각 一切衆生成正覺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퍼져 /철위산 깊은 무간지옥 다 밝아지고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과 칼산의 고통을 모두 떠나/
모든 중생 바른 깨달음 이루어지게 하소서

범종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의 낙을 얻도록 하자는데 필요한

법구로 알려져 있다. 범종각 기둥에 걸려 있는 주련들이 이를 말해 준다. 새벽 예불 종송 鐘頌 할 때 타종 스님이 외우는 게송 偈頌이기도 하다.

새벽 예불은 도량석 ; 목탁으로 시작해서 종송(독송,게송)하고 법고, 목어, 운판, 범종을 순서로 하는 사물 시연에 이어 예불로 마치게 된다고 한다. 법고는 소 가죽이니 축생, 목어는 수중 생물, 운판은 공중 생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문화재들의 향연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각각의 존재들이 묘한 어울림과 조화가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건물들이 서로다 잘났다고 서로를 드러냈다면 이런 조화를 이뤄내기는 힘들 었을 것입니다. 화장‘ 빛남을 감춤’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서로를 빛내게 하는 겸손과 배려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옥의 지붕과 처마 곡선과 지리산의 마루금들이 그려내는 선 또한 참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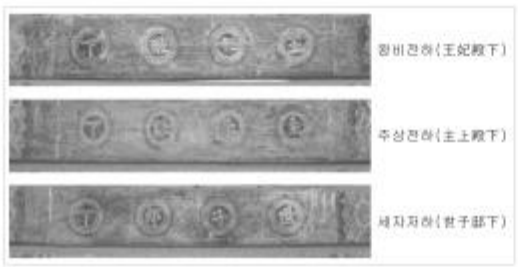
동.서오층석탑



각황전

왼쪽에 보이는 아주 오래된 향기를 풍기는 저 건물이 각황전입니다. 각황전은 화엄사를 대표하는 건물로 정면 7칸, 측면 5칸이나 되는 건물로 드물게 2층이라서 매우 웅장합니다. 우리나라 현존

하는 전각으로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다시지었는데 30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지은 아파트들이 300년 이상을 갈까요.
못하나 없이 지은 한옥이 참 대단해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물이 있는 곳에는 본래 **장육전(丈六殿)**이 있었는데 3층에 정면과 측면이 각각 7칸으로 현재의 각황전보다 훨씬 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각황전보다 더 큰
크기라니 상상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장육은 1장6척의 준말이다. 1장이 10척이므로 16척인 셈이다. 지금은 1척이 30㎝이므로 16척이면 480㎝ 하지만 시기별로 1척의 기준이 달라(고려는 1척이 35cm) 따라서 장육전이 있던시절은 5.6m에 다른다고 함. 구리를 주조하여 만드는 기술, 어마어마한 구리 양, 현재 기술로도 쉽지 않은 불상 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용접기술이 좋아서 쉽게 만들수도 있지만 주조로는 쉽지않다고 합니다.
각황전 앞에 있는 석등(높이 5.6m)도 각황전에 비해 상당히 크게 보이는 데 그 이유는 지금의 각황전 보다 훨씬 큰 장육전의 크기에 맞게 석등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벽의 사방에 화엄석경(華嚴石經)을 새긴 일이 유명합니다. 장육전이라는 이름은 석가모니불의 몸을 장육금신(丈六金身)이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므로 의상이 이 건물을 지을 때에는 금색으로 입힌 석가모니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각황전으로 바꾼 것은 숙종(1702년) 때 일입니다.
부처를 통해 깨달음의 왕이라는 뜻으로 각황이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왕실기원 흔적

장육전 중건은 연잉군과 숙빈최씨의 앞날을 축원하는 불사로 엄청난 물력과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중건이 완료되자 조정에서는 "법을 깨달은 황제가 사는집" '각황보전覺皇寶殿' 이라고 함
왕실의 후원을 받아 지은 흔적은 각황전 내부 전면 창호상단에 남겨진 '주상전하','세자전하', '왕비전하' 단청장식에 남았있습니다.

국보 12호 화엄사 각황전의 불을 밝히는 석등
국내 최대의 석등으로 **국보 12호**입니다. 높이가 6.4m 일반성인 3명높이네요. 저렇게 높은데 불을 어찌 밝혔을까요.
석등은 부처의 광명을 상징한다 하여 광명등(光明燈)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사찰의 대웅전이나 탑과 같은 중요한 건축물 앞에 배치된다.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火舍石)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3단의 받침돌을 두고, 위로는 지붕돌을 올린 후 꼭대기에 머리장식을 얹어 마무리한다.꽃잎 형태는 우담바라화로 이 꽃은 3천년 만에 한 번 핀다고 하여 부처님 오심이 지극히 드문 일이라 비유 한다
꽃의 8잎은 8정도[정견(正見), 정념(正念), 정정진(正精進), 정명(正命), 정업(正業), 정어(正語), 정사유(正思惟), 정정(正定)]이고, 4개의 화창(火窓)은 사성제[고집멸도(苦集滅道)]와 부처님의 광명이며, 북의 모습은 진리의 소리이다.
즉 팔정도로 수행하여 사성제의 진리의 이치를 밝히고 광명을 놓으시며 진리의 소리를 중생들에

게 들려주시어 마음의 등불[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로 세계를 밝혀 주시는 부처님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석등이다. 온전한 사찰 가람에서 환하게 켜져 지리산 및 구례를 비췄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화엄사 원통전 앞 사자탑



보물 제300호. 높이 3m. '노주(露柱)'라고도 불리는 석탑 모양의 석조물이다. 윗받침돌의 덮개돌을 4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어서 '사자탑'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모습은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求禮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 국보 제35호)을 모방한 것이다.



구례 화엄사[59] – 화엄사서오층석탑 앞 배례석

화엄사서오층석탑 앞에는 아름다운 배례석이 하나 놓여 있다. 특히 이 배례석에는 연꽃이 셋이나 조각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렇게 연꽃이 셋이 조각된 배례석은 드물다고 합니다. 꽃이나 향을 올린자리라고 합니다.

사사자삼층석탑 [국보 35호 화엄사]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석탑입니다. 보통 흔히 만날 수 있는 삼층석탑의 형태가 아니라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렸으며 각 아래층 기단에는 천인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위층 기단에는 암수 네 마리의 사자를 모퉁이에 세워놓았으며 탑 가운데에는 합장한 채 서 있는 화엄사의 창시자 연기조사 스님의 어머니가 서 계시고, 맞은편에는 연기조사가 어머님에게 차를 공양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을 통해 효심과 불심을 탑 속에 아로새겨 놓았습니다. 조각 하나하나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 넘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보통 생각하는 탑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더불어 이형탑으로 손꼽히는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입니다.



천년 효심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제 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절 서북쪽 각황전 왼편 동백 숲 사이로 난 108계단을 오르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효대(孝臺)라 불리는 석탑과 석등이 마주보고 서 있으며,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이다.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심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아래층 기단의 각 면에는 천인상(天人像)을 도드라지게 새겼는데 악기와 꽃을 받치고 춤추며 찬미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장 주목되는 위층 기단은 암수 두 쌍, 네 마리의 사자를 각 모퉁이에 기둥삼아 세워 놓은 독특한 구조로, 모두 앞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채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자는 표정이 저마다 다르다. 히죽 웃거나, 슬퍼하거나, 찡그린 모습, 환한 얼굴 등 모두 제각각입니다.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이라 하는데 어느 사자가 찡그리고 있나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자들에 에워싸여 있는 중앙에는 합장한 채 서있는 스님상이 있는데 이는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전하며, 바로 앞 석등의 탑을 향해 꿇어앉아 있는 스님상은 석등을 이고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 합니다. 경건한 모습이다. 천년을 넘는 세월, 차를 공양하고 있으니 효대에는 온통 차향기로 가득하다.

탑신은 1층 몸돌에 문짝 모양을 본떠 새기고, 양 옆으로 인왕상(仁王像), 사천왕상(四天王像), 보살상을 조각해 두었다. 평평한 경사를 보이고 있는 지붕돌은 밑면에 5단씩의 받침이 있으며, 처마는 네 귀퉁이에서 살짝 들려있다. 탑의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의 받침돌인 노반(露盤)과 복발(覆鉢: 엎어놓은 그릇 모양의 장식)만이 남아있다.

각 부분의 조각이 뛰어나며, 지붕돌에서 경쾌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 중엽에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위층 기단의 사자조각은 탑 구성의 한 역할을 하고 있어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 29호)와 더불어 우리나라 이형(異形)석탑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찰에 출가한 스님의 어머니(속가인)가 있는게 궁금하시죠?

현재는 수리복원중이라 유리건물에 해체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백나무가 많이 보이네요. 잠깐 동백나무 이야기 해드릴께요. ‘ 박새영상’

적멸보궁

적멸은 범어 梵語가 되는 열반 涅槃 nirvana을 번역한 말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경계를 말한다. 보궁은 부처를 모신 전이나 각을 궁으로 높여 부르게 된 거니 보배로운 궁전을 이른다. 우리나라엔 불보사찰 통도사가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곳 통도사 대웅전엔 불상이 없다.

대웅전

화엄사 대웅전은 여느 절집과 조금 다릅니다. 바로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불전이 대웅전인데 화엄사는 비로나자부처를 중앙에 모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역사속의 실존 인물로
불교를 창시한 부처인데 반하여, '광명을 두루 비추는 부처'라는 뜻의 비로자나불은 진리
자체를 부처로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현판은 비로전이 아닌 대웅전 여기엔 사연이 있는데
편액 역시 일주문의 현판처럼 인조의 숙부 의창군이 써준건데(모르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다시 부탁하기 힘들어서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불상은 원래 석가모니를 조형화한 것이다. 남방불교에서는 오직 석가상에만 제한되었으나 대승불교시대에는 진리를 관(觀)하여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모두 의미하였기 때문에 많은 불상들이 나오게 되었다.

석가불, 아미타불, 약사불, 미륵불, 비로자나불을 비롯해 관음, 대세지, 문수, 보현, 지장보살 등 모든 불·보살상이 대승불교 교리와 흥기로부터 성립된 것이다. 불상마다 의미가 다르고 그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으뜸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로자나불상이란 불교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비로자나불 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광명신 또는 태양신의 성격이 강하여 인도 고대신화의 대표적 신인 아수라(Asura)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로자나불은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어둠을 없애주고 그 광명은 항상 빛나고 생멸하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을 밝게 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층암

구층암은 문화재보다 모과나무가 더 유명합니다.

요사채의 안쪽 면 가운데 마루 쪽 2개인데 모과나무를 껍질만 벗고 위아래를 맞춰 자른 다음 전혀 다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화엄사 대웅전 뒤 산 속에 있는 구층암. 화엄사에 딸린 암자 가운데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앉음새가 소박하기 그지없으며 전각도 마당도 단출합니다. 본래 화엄사 선방이었다는데 절에 선원이 생기면서 지금은 요사채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층암은 스님들의 수행 장소로, 보이기 위한 장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단순 소박한 건물로 만든 이유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 공간인 암자는 일반 가람에서 보기 힘든 건축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수행하는 스님의 개인 취향이 자유롭게 반영되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세속적 기준과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스님의 마음 씀씀이가 건축물에 덧씌워진 결과인데 구층암에서도 이러한 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층암에는 천불보전과 수세전, 그리고 두 요사채가 있습니다. 천불전 안에는 작은 불상 1000구가 봉안되어 장관을 이루는데 무엇보다 눈길 가는 것은 천불전 앞 대방채의 기둥입니다. 한아름 안기는 큰 덩치의 모과나무 두 개가 건물을 받치고 있는데 울퉁불퉁,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기둥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움푹 파인 나무의 결과 옹이까지 생생한데 모과나무의 더딘 생장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 모과나무는 살아생전 품고 있던 큼직한 돌덩이까지 그대로 품고 있다. 구층암 모과기둥처럼 철저하게 손을 대지 않은 기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건축의 아름다움 하나는 자연을 그대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쓰고, 북사면에서 자란 나무는 건물의 북쪽에, 남사면에서 자란 나무는 남쪽에 쓰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 자연주의 건축의 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채의 승방은 곧 두 그루의 모과나무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건너편 승방에도 또 하나의 모과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으로 쓰이는 세 그루의 모과나무는 본래 이곳 구층암 천불전 앞에서 잎을 틔우고 노란 열매를 맺었던 나무였다 합니다. 200여 년 동안 달콤한 향기로 천불전 부처님께 공양을 하다가 요사채 기둥으로 쓰이며 100여 년을 또 살아온 것입니다.

천불전 앞 양쪽에는 두 그루의 모과나무가 성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구층암 요사채를 지을 당시 심은 것이니 100여 년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구층암 모과나무들은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층암에는 모두 다섯그루의 모과나무가 있는데 마당에 두그루, 맞은편 요사채에 기둥으로 사용한 한그루 지금 보고 있는 기둥 두그루가 여전히 구층암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중 다원으로 잠시 앉아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 다원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단, 차를 마신후 다기와 물을 채워놓고 제자리에 정리해 둬야합니다. 운이 좋으면 화엄사 대밭에서 자란 야생차 "죽로야생차" 를 덕제스

	님과 담소를 나누며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화엄사를 방문하면 국보와 보물들을 찾아내는 데 만해도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복원되어 얼핏 보면 서로 조화롭지 못한데 그래도 한데 어루러져 색 다른 조화미와 균형미를 냅니다. 만든이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一期一會)**입니다. 모든 순간은 생에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에 단 한 번의 인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이렇게 귀한 시간이며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소중한시간 함께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매순간 새롭게 보고 듣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 속 : 지리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
성 명 : 김 명 선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화엄사 역사 문화 해설
운영목표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화엄사의 자연과 역사, 문화재들을 알아보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 선조의 지혜화 얼을 깨닫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경험해 볼 수 있다.
해설주제	화엄사의 자연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아본다.
해설소재	화엄사
운영장소	화엄사
운영시기	1월 ~ 12월
모니터링 주기	월 2회
소요시간	60분(실제소요시간 120분 내외)
주요대상	가족 (적정인원 15명 내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만남 및 주의사항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인사 나누기 및 주의사항		화엄사	5
주제별 해설	화엄사 설명	국립공원에 위치한 화엄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사진자료	화엄사	5
주제 심화	화엄사 이해	화엄사 역사 문화 해설	사진자료	화엄사	20
	미션게임 (게임설명 및 게임활동)	화엄사의 문화재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미션게임을 통화여 재밌게 알아본다.	미션활동지	화엄사	15
정리	미션게임 정리	미션결과를 알아보면서 승자도가리고, 화엄사의 국보와 보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미션활동지,볼펜	화엄사	10
마무리	마무리	화엄사 역사문화해설 마무리 및 정리		화엄사	5

해설프로그램 진행 시나리오

해설프로그램	화엄사 역사 문화 해설	활동장소 화엄사 일원 소요시간 60분 참가대상 가족 참가인원 15명 내외

단계	주요내용	시간(분)
동기유발	**1. 만남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생태탐방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김명선이에요. 반갑습니다. 먼저 사찰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찰내에서는 가능한 큰소리를 내거나 뛰어다니는 행동등을 자제해주시고, 저보다 앞에가시는 분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치거나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 구급약이 준비되어있습니다.	5
주제별 해설	**화엄사 문화여행_일주문** 앞에 보이는 일주문은 화엄사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문은 양 쪽에 있는 기둥을 위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일주라는 뜻은 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찰에 들어갈 때 다른 생각 없이 오직 부처의 마음을 생각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사의 일주문은 다른 사찰의 일주문과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른 점을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일주문은 돌담과 문이 없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화엄사의 일주문을 보면 옆에 돌담도 있고 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돌담도 쌓아놓고 문도 만들어 놓았을까요? 옛날 이 곳은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 많이 있었데요. 그 때 많은 사찰들이 불타서 없어지기도 했는데 화엄사를 중창, 다시 지으셨던 벽암스님께서 왜적의 침입을 막고자 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리산화엄사'라고 적혀있는 현판 왼쪽을 보시면 작은 글씨 보이시죠? 저 작은 글씨는 이 현판을 누가 적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글씨인데요. 이 현판은 선조의 8번째 아들 의창군 광서가 써준 현판입니다. 다들 이 말 아시죠? '나는 떡을 썰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누구죠? 네, 한석봉. 의창군은 한석봉 체의 글씨를 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불교는 어떤 대접을 받은지 다 아시죠? 숭유억불로 불교가 억압받던 시기였는데요. 이렇게 왕자가 적어준 현판을 걸어놓음으로서 지방 관리들의 핍박이나	55

수탈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화엄사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2. 3. 화엄사 설명 및 화엄사 이해

혹시 智異山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혜로울 지, 다를 리 라는 한자를 써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산 이란 뜻입니다.

1. 일주문(사찰의 대문)

일주문을 시작으로 화엄사는 시작됩니다.
한자 그대로 일자로 되어있어 옆에서 보면 하나의 기둥으로 보인다하여 일주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주(一柱)로 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일주는 일심(一心)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선 속세의 걱정거리들을 씻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엄사 일주문이 다른절하고 다른점이 뭘까요?
바로 **돌담과 문짝**입니다.
널문짝을 두 짝 달았고 돌담을 쌓아 문짝을 닫으면 사찰 경내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사찰과는 다른 모습니다.

이유는 풍수적으로 화엄사는 **행주형**입니다. 즉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절이 배인데 물이 들어오면 안되니까 담을 쌓은거고요,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왜적을 물리치고 방비한다는 의미에서 담을 쌓았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불탄 화엄사를 중창한 벽암각성 스님이 다시는 왜군에 의한 피해를 겪지 말아야 하겠다는 염원이 담긴것이라 전해집니다₩

먼저 일주문 현판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읽어보시겠어요? (지리산화엄사)
네 맞습니다.
지리산 화엄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판 왼쪽에 세로로 쓴 작은 글씨가 보이시죠?
[皇明崇禎九年歲舍丙子 仲秋 義昌君 珖書] (황명숭정구년세사병자 중추 의창군 광서)
군이라는 글을 보면 의창군 이광이 인조 14년 1636년에 선조의 8번째 아들 의창군이 썼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에 우호적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족의 글씨를 걸어놓음으로써 지방유지와 관리들의 수탈과 업신여김(핍박)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엄사내에는 명필이었던 의창군이 쓴 현판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주문 현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웅전 현판입니다. 서체는 선조시대 유행했던 한석봉체이며 매우 단정하고 뛰어난 작품입니다.

2. 돌항아리
이곳에는 바닥에 돌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바닥에 네모단 화강석을 깔고 그 위로 네모난 작은 돌들을 쌓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용도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풍수지리학적으로 볼때 화엄사의 전체적인 형국이 배의 모양을 닮아 있어 먼 바다로 항해중 가장 중요한 물을 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이 만들어진 시대의 기록은 없으나 다듬고 설치한 기법으로 보아 혹 고려 초기나, 중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물이 담아 져 있던건 아니구요,
사찰이 화마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오랫동안 왜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가기를 바라는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의미의 항아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3. 차일혁 총경 공덕비
사찰에 고위직 경찰의 공덕비가 있는 것이 좀 의아하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은 빨치산의 주 무대였는데, 특히 화엄사와 같은 절은 그들의 근거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화엄사를 소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차일혁 총경은 관할 지역이 아닌데도 화엄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다른 부대장을 대신하여 화엄사에 들어가 각황전의 문짝들만 떼어내 소각하는 상징적 행위로 그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00년의 고찰 화엄사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4. 구시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의 방언)

여기 보이는 긴 나무토막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7m나 되는 이 긴 나무토막은 사실 일종의 밥그릇입니다.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밥을 지어 보관하거나 쌀을 씻는데 사용했고, 법회 등 큰 행사때 밥을 비벼서 내어놓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정유재란때 승병들이 다 같이 빨리 밥을 먹기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5. 벽암국일도대선사비

벽암국일도대선사비는 화엄사 중창의 주역인 벽암대사 각성의 탑비입니다.
“국일도”이라는 말은 한 나라의 으뜸이 되는 선사 라는 뜻이니
(인조 때 남한산성 공사를 마친 후 보은천교원조 국일도 대선사란 시호를 받았는데, **나라의 제일이라 해서 국일이고,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도(都)자를 썼고, 큰대(大)자까지 사용하였으니 대단한 시호입니다)**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에 스님이 받았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대단한 칭호입니다.
벽암대사는 혼란스러운 전쟁 중 승군을 지휘했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쌍계사등의 사찰을 재건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세우며 침체된 조선후기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1592년 왜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특히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때는 화엄사가 있는 구례가 왜군의 진격로에 위치한 탓에 피해가 더욱 극심했습니다.. 당시 화엄사 승려들은 승병을 조직해 왜적에 맞써 싸웠습니다.
이순신장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등 왜군과 싸워 장렬하게 전사하신분이 많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되버린 화엄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이 바로 **벽암대사 각성스님입니다.**
남한산성 축조가 끝난 이후 남쪽의 사찰들을 많이 복원을 합니다.

화엄사 창건의 설화를 보면 인도의 승려 연기조사가 어머니와 함께 여기 보이는 상상의 동물 “연” 을 타고 화엄경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비의 이수에는 귀면(귀신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고, 이수 꼭대기에는 여의주와 같은 보주(保珠)가 있습니다.
머리는 용(龍), 몸은 거북이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충무공의 군사이며 부장군으로 활약하신 자운스님이 연기존자께서 타고 오신 연의 모습을 본떠 거북선을 만들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이 동물이 바로 연이요, 거북선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앞발가락은 4개인데 뒷발가락은 3개입니다.. 이는 거북이가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 뒷발의 발가락을 접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부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 일까요? 불교에서 보면 사후에 안주할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6. 배롱나무
여기 보이는 나무는 탑비 옆을 지키는 배롱나무입니다.
간지럼나무라고도 합니댜.
7월에서 9월 여름철에 진한 분홍색꽃이 100일 동안 핀다고 하여 ‘목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핀 꽃이 처음부터 계속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피어서

100일 동안 오래 꽃을 유지 합니다.
이 나무를 사찰에 많이 심는 것은 배롱나무가 껍질을 다 벗어 버리듯 스님들 또한 세속을 벗어 버리길 바라는 마음이며,
선비들의 기거처 앞에 심는 것은 청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절 마당이나 선비들만 기거하는 사랑채의 앞마당에는 많이 심었는데 여름 한철의 기나긴 시간동안 끊임없이 고운 꽃을 피워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배롱나무는 꽃만 아니라 수피(樹皮)도 특색이 있다. 껍질의 얇은 조각이 떨어지면서 반질반질한 피부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 나무 표피를 긁으면 간지럼 타듯 나무가 흔들린다고 해서 '간지럼 나무'라고도 부른다. 배롱나무는 정말 간지럼을 타는 것일까. 배롱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린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이 간지럼을 태우기 위해 나무에 다가갈 때 이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린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 일본에서는 표면이 너무 매끈해 나무 잘 타는 원숭이도 미끄러진다고 '원숭이 미끄럼나무'라 부른다.

7. 금강문
이곳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두 번재 문입니다.
금강역사상은 불법을 훼방하려는 세상의 사악한 세력을 경계하고,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2명의 금강역사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지키는 역사가 나라연금강(아금강)이고, 왼쪽을 지키고 있는 역사가 밀적금강(훔금강)이다.
나라연금강은 공격하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코끼리의 백만배에 달하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밀정금강은 손에 금강저를 들고 방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저는 지혜의 무기이자 번외를 부수는 무기이고 어떤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금강석으로 만든 천하무적의 무기라고 합니다.

밀적금강은 '흠' 하는 소리를 내는 입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는 범어의 첫 글자고, '흠'은 끝 글자인데 이 두 금강역사의 입은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영원과 통일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강역사 옆에는 각각 문수동자와 보현동자가 앉아 있습니다.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는 실천을 상징합니다.
타고 있는 사지와 코끼리의 머리방행도 관련이 있는 데요,

들어가면서는 사자의 눈을 맞추면서 들어가고 , 나올 때는 코끼리의 눈을 맞추면서 나오는
즉, 지혜와 깨달음을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강문은 말처럼 단단하다는 뜻인데
대체적으로 다른 사찰 같은 경우는 이문이 생략되어있는 경우가 굉장이 많다고 합니다.

8. 보리수나무

여기 보이는 이 나무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보통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하는데 그 나무와 여기 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인도 보리수라는 나무인데, 잎이 두껍고 넓으면서 인도같은 더운 곳에서는 자라는 열대성 수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가 맞지 않아 겨울을 날수가 없지만, 인도에서는 흔한 나무이다 보니 인도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외국어를 한자로 음역하다보니 “보리수”라고 번역하게 되었지만, 이 나무를 보리수라고 부르면 우리나라에 원래살던 보리수와 혼동되기 때문에 “인도보리수”하고 따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인도보리수는 염주가 열리는 데요, 열대성 수종이라 국내에서는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고 염주가 열리는 대용품 나무를 중국에서 들여와 사찰 주변에 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리자나무>라 부르며 사찰 주변에 심게 되었습니다. 이 염주가 열리는 나무는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철피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산에서 만나면 “찰피나무
”, 절에서 만나면 “보리자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9. 천왕문

금강문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안치된 전각입니다.
사천왕은 고대 인도종교에서 숭앙하였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석가모니에게 귀의하여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천왕문 보면 다른데 보면 여기 천왕들 밑에 마귀들이 죽어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 사찰을 지키고 악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남: 맨 앞에 무서운 표정으로 칼을 쥐고 있는 분은 남쪽을 지키는 천왕입니다.
선한 이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서: 반대편에 한손에는 용, 다른 한 손에는 여의주를 쥐고 있는 왕은 서쪽을 지키는 천왕입니다, 선한 이에게는 여의주를 주고 악한 이에게는 용을 풀어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북: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천왕은 웅변으로 나쁜 이야기를 물리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입을 살짝 벌리고 있고 주로 삼지창이나 보탑을 들고 있습니다.

동: 마지막으로 비파를 치면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분은 동쪽을 지키는 천왕이고 표정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백성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여 나라를 지키는 천왕입니다.

천왕들의 표정을 보시면 안쪽에 있는 천왕들과는 달리 바깥쪽에 있는 천왕들은 입구쪽을 노리면서 악귀가 들어올 세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10. 당간지주

두 개의 돌 기둥이 보이는데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당간 지주는 사찰에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깃발을 달아두는 곳을 말합니다.
일주문 바깥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화엄사의 입구가 예전에는 이곳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화엄사가 항해하는 배 모양이어서 중심부에 돛대처럼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1. 보제루

보제라는 뜻은 '널리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제루는 대웅전이 대중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대웅전을 올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사찰의 "법요식"등 행사를 할 때 스님이나 신도들이 집회를 가졌던 공간입니다.
자연스러운 나무색을 띄고 있고 기둥도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초석의 단면을 인공적으로 깍지 않고 그대로 살려 나무와 주초석이 완벽하게 밀착되도록 했기 때문에 지진이나 외부충격에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땅이 흔들려도 돌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신라시대 때 지난번 경주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다쳤을 때에도 이 기법을 사용한 불국사는 끄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렝이 공법' (울퉁불퉁한 자연석 위에다 맞닿는 면을 맞춰 다듬은 석재를 얹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2016년 6월 경주에서 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 발생해서 한바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석을 서로 맞물리게 촘촘히 쌓은뒤, 그 위에 세우는 기둥의 밑면을 자연석의 형태대로 정밀하게 깎아서 쌓은 전통 건축 방식을 '그랭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사찰의 모든 법요식은 이 곳 보제루에서 행해집니다. 그 이유는 대웅전이 대중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보제루처럼 대웅전을 올려다볼 수 있는 누각에서 법요식을 베푸는 것이 옛 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장**
빛나지만 감춘다는 종교적 겸손함이 보이는
***화장세계**
극락세계.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화장계(華藏界). 연화세계(蓮花世界).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도를 이룬곳

12. 동오층석탑
동오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백제와 신라의 양식이 혼합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의 기단이 2층인 반면 동오층 석탑은 기단이 1층인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오층석탑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장식없이 단정한 모습을 하여 뒤에 있는 대웅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3. 서오층석탑
서오층 석탑은 동오층석탑과 같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었으나, 동오층석탑에 비해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영역에 있는 쌍탑도 풍수지리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 화엄사의 지형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배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자나요, 배는 출렁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리를 두 탑 안에 봉안하여 요동침을 학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형태는 2층의 기단에 5층의 탑신이 있고 아래층 기단에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석탑에서는 흔하지 않은 기법입니다. 그리고 윗층 기단에는 8명의 신이 조각되어 있고 탑신의 1층에는 사천왕이 조각되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오층석탑을 보수하는 도중 그 안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고 지금은 성보박물관에 보관중입니다.
사리장엄구는 보물 제1348호로 지정되었으며,.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와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제지술, 사리장엄법, 불교조각, 금속공예와 후대에 청자를 사리용기로 받아들인 증거 등을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사회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커 서지학 및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앞에는 연꽃을 기르던 석연지가 있습니다.
연꽃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연꽃은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연꽃은 깨끗한 물이 아닌 진흙속에서 자라나는 것 알고 계시죠?
더러운 물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러움을 조금도 자신의 꽃이나 잎에 묻히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불자가 속세에 있어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어 믿음과 실천의 꽃을 피우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살이 홀로 자신만의 안락을 위해 머물러 있지 않고 중생의 구제를 위해 더러움이 있는 세계로 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연꽃은 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인과의 이치에 맞는다 하기도 하고 연꽃이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경건히 서있는 불자의 모습과 연꽃의 봉오리가 흡사한데 이러한 몇가지 이유들로 인해 연꽃이 불상의 받침대로 표현되기도 하는 등의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4. 괘불지주
대웅전 앞에 큰 돌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 였을 것 같아요?
이 곳은 긴 막대를 이 사이에 끼우고 그림을 걸기도 하고 이곳이 신성한 사찰지역임을 알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 화엄사 국보인 “화엄사영산회괘불탱”을 걸기도 했었는데, 가로 7m 세로11m의 굉장이 큰 탱화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훼손이 될 우려가 있어 걸지 않고 있습니다.
“화엄사영산괘불탱”이라는 이름에서 괘불이라는 뜻은 야외에서 큰 법회를 할때에 모시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혹시 “야단법석 떨지마~” 할 때 야단법석 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야단법석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야외에 단을 차리고 법회를 열 때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고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 때문인지 비하되어서 지금은 소란스럽고 떠들썩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15. 각황전(왕이 깨닫다)
화엄사 건물 중에서도 가장 유서 깊고아름다운 건물은 국보 제 67호인 각황전입니다. 이 각황전은 매우 웅장하고 건축기법도 띄어나 우수한 건축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은 3층의 장륙전이 있었고, 사방의 벽에 화엄경이 새겨져 있었으나, 임진왜란때 파괴되어 9천여 점이 넘은 화엄석경 조각들만 절(성보박물관지하)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엄석경은 우리나라 화엄종 사찰의 상징적 유물로서 비록 파편이기는 하나 신라후기의 불교사 연구에 화용되는 귀중한 자료로

현제 보물 10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육전
일장육척의 황금색깔 피부를 가진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장육전.
부처님의 신체 크기가 1장 6척이었데요. 신체 크기 그대로 만든
부처님이 장육전에 모셔져 있었죠. 그 사방 벽이 청석인데 그 청석에
화엄경이 새겨져 있는 거에요.

3층 7칸으로 이루어진 사방벽면에 화엄석경이 둘러져있는 웅장했던
장육전.
그러나 정유재란때 전각은 불에 타고 석경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일제 강점기까지 각황전 주위에 돌무지로 남아있던 석경의 파편은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일부 수습될수 있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화엄사의 중창은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됩니다.

대웅전이 복원된지 거의 70년만에 장육전자리에 다시세운 건물에 숙종이
직접 각황전이란 이름을 짓고 편액을 내렸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6. 각황전앞 석등
특히 동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각황전앞 석등은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을 중심으로 상단의 돌받침과 큼지막한 팔각지붕위에 놓인
머리장식이 전체적인 완성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동안 진리의 빛을 밝히는 어둠속 등불이 되어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사찰에서 석등의 의미는 불을 켜주기도 하지만 광명의 광명생이라고 함.
모든 절에는 석등이 많음

17. 원통전앞 사자탑
그리고 이 석등 바로 옆에슨 보물 제300호 원통전전사자탑이 놓여
있습니다.
석등보다 작은 것이 특이한 점으로 석등과 잘 어우러져 각황전을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18. 홍매화
홍매화는 각황전을 지을 때 기념으로 심은 나무로 “장육화”하고도 하고
다른 홍매화 보다 꽃이 검붉어서 “흑매화”하고 도 합니다.

19. 원통전
각황전을 지으면서 같은시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임진왜란대 폐허가
된 후 남아있는 장육전 계단과 기단의 일부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원통전
계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20. 대웅전

화엄사 대웅전은 화엄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당으로 보물 제299호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사찰답게 대웅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지형에 세운 건물답게 대웅전 앞에서 바라본 전망이 좋고 앞이 탁 트여있습니다.

정면5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사이에도 장식이 있는 다포양식으로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에는 보물이 3가지나 있는데요,
대웅전 그자체, 안에 모셔진 삼신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삼신탱화가 보물입니다.
법당안에는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이 모셔져 있고 주불로 모셔진 비로자나불은 수인으로 알수 있는데, 부처를 뜻하는 오른손이 중생을 뜻하는 왼손을 감싸고 있는,
즉, 부처님이 중생을 감싸고 번뇌와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이런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려진 탱화는 18세기에 있던 스님이 그린 것으로 초록색을 많이 쓴것이 특징입니다.
길이가 4m가 넘는 3폭의 탱화와 삼신불을 모두 갖춘 것은 매우 드문 예로 삼신불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엄사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은 비로자나불인데 사실 대웅전은 석가보니불을 모시는 불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불전은 대적광전 또는 비로전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대웅전 현판은 일주문 현판과 같은 의창군이 썼다고 합니다.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시대 이다 보니 화엄사에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것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화엄사에서 사람을 보내 글을 받아 왔겠죠? 그런데 도착한 글이 맞지 않는 거에요 하지만 다시 써달라고 할 수 없어서 왕자님이 내려주신 현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돌은 석연지라고 연꽃을 기르던 석조입니다.

21. 적멸보궁

각황전에서 왼편의 108계단을 걸어 만날 수 있는 적멸보궁,
이 조용한 곳에 자리잡은 사사자삼층석탑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알면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자들에 에워싸여 중앙에 합장한 체 서있는 스님상이 있는데 이는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바로 앞 석등의 탑을 향해 꿇어 앉아 있는 스님상은 석등을 이고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 합니다.

22.**명부전**
염라대왕 7*7 = 49 49일동안 심사?
죽은자들의 죄를 심판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하는곳)

이렇게 저 세상을 가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것이7일 만에 한번씩 재판이 열리며, 이런 재판이 일곱 번이 끝나면 그 죄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7×7 = 49해서 49제가 열리게 되고,

명부(冥府), 지장(地藏) 또는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하는데 주존은 지장보살

4. 미션게임 (게임설명 및 게임활동)

화엄사의 문화재(국보4점/보물8점)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미션게임을 통화여 재밌게 알아본다.

5. 미션게임 정리
미션결과를 알아보면서 부연설명과 더불어, 우승자도 가리고, 화엄사의 국보와 보물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6. 마무리
화엄사 역사문화해설 마무리 및 작별인사

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 속 : 지리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
성 명 : 서 영 주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천년고찰 화엄사의 숨은 보물찾기
운영목표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선조들의 삶의 철학과 미의식을 이해하고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낀다.
해설주제	천년고찰 화엄사의 역사 속으로 go go
해설소재	화엄사 3개의 문(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당간지주, 보제루, 화엄사의 국보 4점과 보물 8점, 적멸보궁
운영장소	구례 화엄사
운영시기	1월 ~ 12월
모니터링 주기	월 2회
소요시간	60분
주요대상	4인 가족 4팀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분)
동기 유발	1. 만남	◦인사나누기 ◦안전교육 - 활동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구급약품	화엄사 일주문	5분
주제별 해설	2. 주제소개	◦천년고찰 화엄사 탐방 - 화엄사의 설화와 역사 이해하기 - 3개의 문(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알아보기	-	화엄사 일주문 ~ 천왕문	10분
주제 심화	3. 화엄사의 국보와 보물	◦화엄사의 국보와 보물 - 화엄사의 국보 4점과 보물 8점 알아보기 - 선조들의 얼과 건축양식 알아보기	사진자료	화엄사 보제루 ~ 각황전 (사사자삼층석탑 공사중)	20분
정리	4. 도전! 역사 오리엔티어링	◦도전! 역사 오리엔티어링 - 미션용지를 통해 화엄사 들어다 보기	사진자료 미션용지 상품	화엄사 보제루	20분
마무리	6. 마무리 느낌나누기	◦마무리 및 느낌나누기 - 소감나누고 역사·문화의 소중함 알아가기	-		5분

해설프로그램 진행 시나리오

해설프로그램

천년고찰 화엄사의 숨은 보물 찾기

활동장소 화엄사 일원
소요시간 60분
참가대상 가족
참가인원 15명 내외

단계	교육내용	시간(분)
동기유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화엄사 이야기를 하게 될 해설사 서영주입니다. 화엄사에는 오신 적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럼 그동안 화엄사나 사찰을 다니시면서 주로 무엇을 보셨나요? 그냥 둘러보다가 사진만 찍고 가기엔 우리 문화 유적지는 아까운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오늘 화엄사를 둘러보시면서 우리의 문화,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 자연에서 지혜를 얻고 함께 살아가려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탐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란 거 잘 아시죠? 혹시 해설 중 다치거나 아프신 분 있으시면 여기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자 그럼 화엄사 곳곳의 숨은 이야기와 의미를 찾아 가볼까요?	5
주제 별해설	화엄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화엄사에 대해 간단히 알고 시작할까요? 화엄사는 華(꽃화)嚴(공경할엄)寺(절사)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경화엄경의 두 글자를 따서 화엄사라고 하는데요, 화엄의 뜻은 만덕을 닦아 덕과를 장엄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화엄사 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백제 시대의 인도의 스님이신 연기조사께서 어머니와 함께 하늘을 나는 연이라는 동물을 타고 두류산(백두산의 정기가 흘러 이루어진 산: 현재의 지리산)에 오셔서 계곡 곁에 움막을 짓고 염불하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계셨습니다. 몇일 후 마을 사람들이 산 중턱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움막을 찾아 와 보고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외국의 스님이 왜 여기 왔을까 궁금히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박노인이 글로써 대화를 나누니 부처님 최고의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을 펼칠 곳이며 문수보살님이 계신 곳 이기에 여기에 왔다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불할 법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절 이름을 화엄경의 두자를 따서 화엄사라 하고 두류산의 문수보살님이 계신 산이라 대지문수사리보살의 이름을 택하여 지리산이라 하여 지리산화엄사가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일주문** 이 화엄사에는 총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문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화엄사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일주문 현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시겠어요? (지리산화엄사) 네 맞습니다. 지리산 화엄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10

주제별해설	현판 왼쪽에 세로로 쓴 작은 글씨가 보이시죠? [皇明崇禎九年歲舍丙子 仲秋 義昌君 珖書] (황명숭정구년세사병자 중추 의창군 광서) 군이라는 글을 보면 의창군 이광이 인조 14년 1636년에 선조의 8번째 아들 의창군이 썼다는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글쓴이의 이름이 들어간 현판이라 함) 서체는 선조시대 유행했던 한석봉체이며 매우 단정하고 뛰어난 작품입니다. 화엄사에는 명필이었던 의창군이 쓴 현판이 두 개가 있는데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화엄사의 일주문은 다른 사찰과 달리 주위로 담이 둘러져 있는데 이유는 풍수적으로 행주형이라고 합니다. 즉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임진왜란 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왜적을 물리치고 방비 한다는 의미에서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진왜란의 피해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하겠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 아닐까요? 일주문은 한자 그대로 일자로 되어있어 위에서 보면 하나의 기둥으로 보인다하여 일주문이라 부르기도 하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속세의 걱정거리들을 씻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모두들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암국일도대선사비 벽암국일도대선사비는 화엄사를 재건한 벽암대사 각성의 탑비입니다. “국일도”이라는 말은 한 나라의 으뜸이 되는 선사라는 뜻이니 (인조 때 남한산성 공사를 마친 후 보은천교원조 국일도 대선사란 시호를 받았는데, 나라의 제일이라 해서 국일이고,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도(都)자를 썼고, 큰대(大)자까지 사용하였으니 대단한 시호입니다)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에 스님이 받았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대단한 칭호입니다. 1592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네, 왜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입니다. 특히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 때는 화엄사가 있는 구례가 왜군의 진격로에 위치한 탓에 피해가 더욱 극심했습니다. 당시 화엄사는 승군의 주둔지 이자 훈련장이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왜군이 앙갚음으로 화엄사를 모두 불 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되어버린 화엄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이 바로 벽암대사 각성스님입니다. 이 비석 아래를 보시면 무슨 동물 같아 보이나요? 네, 이것은 인도의 승려 연기조사가 어머니와 함께 타고 왔다는 상상의 동물 “연”이라는 동물입니다. 머리는 용(龍), 몸은 거북이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연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 보면 사후에 안주할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배롱나무** 여기 보이는 나무는 탑비 옆을 지키는 배롱나무입니다. 일명 간지럼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10

이 배롱나무는 여름철에 꽃이 피는데요~ 진한 분홍색 꽃이 100일 동안 핀다고 하여 '목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핀 꽃이 처음부터 계속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피어서 100일 동안 오래 꽃을 유지 합니다.
이 나무를 사찰에 많이 심는 것은 배롱나무가 껍질을 다 벗어 버리듯 스님들 또한 세속을 벗어 버리라는 의미로 화엄사 뿐만 아니라 사찰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금강문

이곳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 금강문입니다.
금강은 쇠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금강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번뇌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훼방하려는 세상의 사악한 세력을 경계하고,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2명의 금강역사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지키는 역사가 나라연금강(아금강)이고, 왼쪽을 지키고 있는 역사가 밀적금강(훔금강)입니다. 나라연금강은 공격하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코끼리의 백만배에 달하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밀적금강은 손에 금강저를 들고 방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연금강은 '아' 하는 소리를 내는 입모양을 하고 있고, 밀적금강은 '흠' 하는 소리를 내는 입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는 범어의 첫 글자고, '흠'은 끝 글자인데 이 두 금강역사의 입은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영원과 통일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강역사 옆에는 각각 문수동자와 보현동자가 있는데요.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는 실천을 상징합니다. 보시면 사자와 코끼리의 머리 방향이 다른데, 이는 들어가면서는 사자의 지혜를 얻어 나가면서 코끼리의 깨달음을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왕문

이곳은 금강문을 지나면 마지막 문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지국천왕, 중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의 사천왕이 안치된 전각입니다.
사천왕은 고대 인도종교에서 숭앙하였던 귀신들의 왕이었으나 석가모니에게 귀의하여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세계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찰을 지키고 악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화엄사의 사천왕 발밑을 보면 아무도 없는데 가까운 천은사 천왕문만 가보아도 천왕들 밑에 마귀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다른 사찰을 가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사찰여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사찰 같은 경우는 금강문이 생략되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금강문과 천왕문이 두 개 있다는 건 엄청 큰절을 말합니다.

▶당간지주

두 개의 돌 기둥이 보이나요? 이것은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당간지주는 사찰에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깃발을 달아두는 곳을 말합니다.
대게 일주문 바깥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화엄사는 왜 이곳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화엄사의 입구가 예전에는 이곳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화엄사가 항해하는 배 모양이어서 중심부에 돛대처럼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제심화	**▶보제루** 보제라는 뜻은 '널리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제루는 스님이나 신도들이 집회를 가졌던 공간입니다. 이 건물은 자연스러운 나무색을 띄고 있고 기둥도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건물과 가장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기둥의 건축공법은 그렝이질이라고 합니다. 그렝이질은 울퉁불퉁한 자연석의 형태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맞닿는 면을 맞춰 깎아 올려놓은 공법입니다. 주초석의 단면을 그대로 살려 나무기둥과 완벽하게 밀착시켜 놓아 땅이 흔들려도 돌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기에 지진이나 외부충격에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렝이질은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시키려는 선조들의 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엄사의 보제루는 누하진입방식 즉 보제루 아래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각진입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우각진입방식은 좁은 진입로로 강한 폐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긴장감을 통해 지리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각황전과 대웅전이 있는 화엄사의 전경을 한눈에 펼쳐지게 하려는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을 통해 대웅전 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한 대 어울린 화엄사의 전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들 보제루의 툇마루에 앉아 화엄사의 국보와 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엄사에는 국보 4점과 보물 8점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보물은 예로부터 대대로 물려 오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물이라 하는데 국보는 그 보물 중에 보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국보와 보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오층석탑**(보물132호), **서오층석탑**(보물133호), **서오층석탑 사리장엄구**(보물1348호) 혹시 탑은 누구의 무덤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스님의 무덤은 화엄사일주문을 들어서기 전에 있던 부도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무덤인 앞에 두개의 있는 탑을 알아볼게요. 탑의 층을 세는 방법을 아시나요? 네! 맞아요. 아래 기단부는 층을 세지 않고 지붕의 곡선을 닮은 옥개석을 층으로 세면 되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탑의 이름은 동쪽에 있는 탑은 동오층석탑, 서쪽에 있는 탑은 서오층석탑입니다. 이 두 탑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오층석탑은 장식없이 단정한 모습을 하여 뒤에 있는 대웅전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오층 석탑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2층의 기단에 5층의 탑신이 있고 아래층 기단에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석탑에서는 흔하지 않은 기법입니다. 그리고 윗층 기단에는 8명의 신이 조각되어 있고 탑신의 1층에는 사천왕이 조각되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오층석탑을 보수하는 도중 그 안에서 많은 사리장엄구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은 성보박물관에 보관중입니다.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와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제지술, 사리장엄법, 불교조각, 금속공예와 후대에 청자를 사리용기로 받아들인 증거 등을	20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사회문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커 서지학 및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 **대웅전**(보물299호),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보물1548호), **삼신탱화**(보물1463호)

화엄사 대웅전은 화엄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당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사찰답게 대웅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리산의 산 능선과 함께 어우러진 대웅전의 모습이 웅장해 보입니다. 대웅전에는 보물이 3가지가 있는데요. 대웅전 그 자체, 안에 모셔진 삼신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삼신탱화가 보물입니다.

법당 안에는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주불로 모셔진 비로자나불은 부처를 뜻하는 오른손이 중생을 뜻하는 왼손을 감싸고 있는데 부처님이 중생을 감싸고 번뇌와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불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불전은 대적광전 또는 비로전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왜 화엄사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주문 현판과 같은 현판! 바로 의창군이 쓰신 다른 현판하나가 바로 대웅전입니다.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시대 이다 보니 왕실의 현판을 달아 그 화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왕실에서 보낸 현판이 대웅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시 써달라고 할 수 없어서 내려주신 현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 같다는 설이 있습니다.

삼신불 뒤에 그려진 탱화는 18세기에 있던 스님이 그린 것으로 초록색을 많이 쓴 것이 특징입니다. 길이가 4m가 넘는 3폭의 탱화와 삼신불을 모두 갖춘 것은 매우 드문 예로 삼신불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원통전, 원통전 앞 사자탑**(보물300호)

원통전에는 관세음보살님, 칠성, 독성, 산신이 모셔져 있으며 또 법당에 많은 귀중한 목판들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편액(문 위에 걸려진 액자를 가리키며)은 정조 23년에 조종현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전 앞에는 보물로 지정된 원통전앞사자탑이 놓여 있습니다. 전쟁당시 위에가 깨져 있어 층수는 모르고 아래에 4마리의 사자가 위에 탑을 이고 있어서 사자 탑이라 불립니다.

옆에 큰 석등과 잘 어우러져 각황전을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 **각황전**(국보67호), **화엄석경**(보물1040호)

이 건물은 현존하는 목조건축물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조건축물입니다. 화엄사 건물 중에서도 가장 유서 깊고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 국보 각황전입니다. 이 각황전은 매우 웅장하고 건축기법도 띄어나 우수한 건축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층의 각황전의 과거에는 3층으로 된 장육전이 있었습니다. 장육전은 일장육척의 황금색깔 피부를 가진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처님의 신체 크기가 1장 6척이었는데 그 크기 그대로 만든 부처님이 장육전에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방 벽은 청석으로 되어있고 그 청석에 화엄경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3층 7칸으로 이루어 웅장했던 장육전은 정유재란 때 전각은 불에 타고 석경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일제 강점기까지 각황전 주위에 돌무지로 남아있던 석경의 파편은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일부 수습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9천여 점이 넘은 화엄석경 조각들은 지금 절(성보박물관지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석경은 우리나라 화엄종 사찰의 상징적 유물로서 비록 파편이기는 하나 신라후기의 불교사 연구에 활용되는 귀중한 자료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화엄사의 중창은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마무리 됐습니다. 대웅전이 복원 된지 거의 70년 만에 장육전 자리에 다시세운 건물에 숙종이 직접 각황전이란 이름을 짓고 편액을 내렸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각황전을 보시면 옆에 대웅전과 달리 단청이 되어있지 않아요, 다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단청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안쪽에서도 단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랜 세월에 의해서 단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해야 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드시죠! 단청을 안 하는 이유는 예전엔 자연재료로 했습니다. 그 자연재료를 구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단청을 새로 하면 국보가 옛 모습을 잃고 훼손이 될 수 있다 하여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각황전 앞 석등**(국보12호)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팔각 장고형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석등입니다. 그리고 동양 제일의 석등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조형미와 법당과의 조화 등이 훌륭한 문화재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모습은 300년에 한번 꽃을 피운다는 우담바라 꽃 모양이며 지대석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등은 구조가 안정적이고 웅건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처음 이 석등을 보았을 때 근래에 만들어 진 석등인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보존상태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각황전 중심의 연장선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빛을 통해 세상에 전하려는 기운이 느끼지는 석등입니다.

▶ **영산회괘불탱**(국보301호)

석가탄신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경우 대웅전과 각황전에서 모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만든 것이 바로 (사진자료)

이 영산회괘불탱입니다. 조선 효종 때 만들어진 탱화이며 크기는 길이 11.95m, 폭 7.76m입니다. 각 상들의 늘씬하고 균형 잡힌 형태, 밝고 선명하며 다양한 색채, 치밀하고 화려한 꽃무늬 장식 따위에서 17세기 중엽의 특징이 잘 나타난 그림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탱화를 (사진자료) 그림과 같이 3개의 괘불대에 걸어 밖에서 법회를 들였다고 합니다. 괘불이라는 뜻은 야외에서 큰 법회를 할 때에 모시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혹시 “야단법석 떨지마~” 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여기서 야단법석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야외에 단을 차리고 법회를 열 때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고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 때문인지 비하되어서 지금은 소란스럽고 떠들썩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 **적멸보궁, 사사자삼층석탑**(국보35호)

각황전에서 왼편으로 돌아가시면 적멸보궁이 있고 108계단을 걸어 오르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국보 사사자삼층석탑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사사자삼층석탑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알면 또 다른 화엄사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이 6.3m 직경 2.8m 국내 최대규모의 이 석탑에는 사찰의 창건주인 연기조사의

	설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석탑의 중앙에 합장한 채 서있는 성인상이 바로 연기조사의 어머니 이며, 석등을 머리에 이고 차를 공양하는 이가 바로 연기조사로 어머니를 향한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 전해옵니다. 이 탑의 백미는 암수 두 쌍의 4마리 사자가 탑신부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모두 앞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4개의 사자상은 각기 다른표정과 자세로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고 전해오며 석탑의 사자기둥을 세운 우라나라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승상과 사자상을 비롯해 몸돌과 기단석 지붕돌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들로 수놓아진 사사자삼층석탑은 화엄사에서 가장 오래된 탑임과 동시에 통일신라시대의 탁월한 조형능력을 보여주는 뛰어난 걸작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앞에 설화로 보아 사사자삼층석탑을 일명 '효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화엄사에서 남긴 시에도 효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 종일토록 방황하며 지난일 생각하는데 어슴푸레 어두운 저녁 슬픈 산바람 한 줄기 **효대**를 스치네..대각국사의천이 화엄사에서 읊은시 "	
정리	**▶ 도전! 역사 오리엔티어링** 이제 재미있는 미션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션용지를 나눠드릴게요. 미션용지에는 방금 전 알아보았던 국보와 보물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면 되는 놀이인데요~ 놀이룰은 간단합니다. 첫째, 가족의 얼굴이 같이 나와 있어야 한다. 둘째, 찍을 수 있는 문화재와 없는 문화재가 있으니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찍어오셔야 합니다. 20분을 드릴게요. 들리지 못한 화엄사를 둘러보고 오시면서 미션도 같이 하고 오세요. 가족들과 같이 사진이 나오면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20분 뒤에 보제루 앞 마루에서 만나겠습니다. (20분 뒤) 사진과 미션지를 활용해 우승팀을 가려낸다.	20
마무리	오늘 저와 함께 한 화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보내신 시간 어떠셨나요?(한 두 사람 소감을 이야기 하게 한다.) 저는 처음 화엄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화엄사에 많이 왔지만 한곳 한곳에 담긴 조상의 지혜나 자연과의 조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 고마움과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느끼셨나요?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자연을 훼손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가슴에 담아가 살아가는 날마다 오늘의 가슴속 불을 꺼뜨리지 말고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서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